



24대 회장단 출범 ... “서울대인으로서 품격 높이는데 노력”



지난 5월 14일 열린 제24대 회장단 상견례에서 참석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3~6면>

관악출추

모교 동창회 사상 총동창회가 이룩한 여러 업적 중 괄목할 만한 두어 가지를 든다면 단연 서울대 개교 원년 찾기와 동창회관(장학빌딩) 건립이 될 것이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지난 5월 14일 열린 총동창회 24대 회장단 상견례에서 축사를 통해 전임 23대 회장단의 성과를 크게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 가지 성과를 ▲서울대 개교의 뿌리를 찾아서 개학 원년을 1895년으로 설정한 것 ▲동창회관 건립, 그리고 회관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관을 장학재단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 것 ▲모교 법인화 추진의 당위성 홍보 등 광범한 지지 여론 조성 ▲학부 출신 중심의 동창회를 과감히 탈피함으로써 동창회 외연확대와 결속을 강화한 것 등으로 정리했다.

吳총장은 이 가운데 개교 원년 찾기는 23대 회장단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林光洙 회장을 포함한 동창회 임원진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1907년

스승의 날 기념 사은 골프대회서 화합 다져



지난 5월 19일 인천그랜드CC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한 제14회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7면>

24대 회장단에 거는 기대

고종황제의 밀사로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됐다가 현지에서 순국한 李 儁(1895년에 설립된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 열사의 전신동상이 지난 4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에 세워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무엇보다 서울대 개교 원년의 뿌리 찾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吳총장은 그러면서 서울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전임 회장단의 업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24대 회장단은 에이 플러스에 만족하면 안 되고 트리플 에이(AAA)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AAA는 A+ 보다 4단계 높은 최고의 등급이다. 따라서 24대 회장단에 거는 吳총장의 기대가 과욕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새 회장단이 어떻게 창의적인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AAA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교는 금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있다. 법인화의 목표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식공동체 창출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신임 회장단은 더욱 분발해 모교가 겨레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3만 동문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대가 세계의 대학으로 가는 법인화 원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동문들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徐玉植논설위원)

제9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1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농생대 75-1동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제9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오는 7월 1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2년 7월 1일(일) 09:30~17:00
-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농생대 75-1동 3층(농생대 제3식당)
- ◆참가대상 : 서울대 동문, 교직원 및 재학생(단, 아마 7급 이상)
- ◆진 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 棋力別 64명 이내
- ※총 호선(팀 6점반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 ◆신 청 : 2012년 6월 20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로 신청
- ◆참 가 비 : 없음(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오시는 방법
- 승용차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오른쪽 농생대 건물 주변에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5513번, 5511번을 타고 관악캠퍼스 내 농생대 건물에 하차
-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느리나무광장

제작년 초 SBS에서 개화기 서양 의학의 상륙을 다룬 ‘제중원’이 방영됐다. 4개월 동안 방영된 이 드라마는 개화기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서양의학을 들여와 인술을 펼치고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그려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천민 출신 청년이 조선 최초의 양의로 입신하는 극적 요소와 함께 당시로서는 신의 경지로 여겨졌던 서양의술이 흥미롭게 소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이 드라마로 재미를 본 것은 연세대였다. 제중원이 최초의 왕립(국립)병원이나 선교사 호러스 알렌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의과대학이냐를 놓고 모교 의대와 연세대는 오랜 세월 논란을 벌여왔다. 그런데 30여 년 전 개교 원년 선수를 친 연세대가 이 드라마를 통해 ‘1895년 개교’를 일반에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이다.

2010년 8월 KBS2에선 ‘성균관 스캔들’이 방영됐다. 이 드라마는 병약한 남동생 대신 남장으로 과거를 보고 성균관 유생이 된 여주인공 대물을 중심으로

로 금남구역 성균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 사극. 흥미로운 건 이 드라마 역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대학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주인공 중 하나가 성균관대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드라마와 성균관대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

성균관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학교 홈페이지에 적힌 학교 연혁을 보면 참 재미있다. 당초 개교 원년을 대학이 설립된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 하려했다는 것. 그러다 조선시대 국립대학으로 현

캠퍼스에 자리를 잡은 1398년을 개교 원년으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는 어렵사리 개교 원년 복원을 이뤘다. 1895년 설립된 법관대학의 전신 ‘법관양성소’를 개교 원년의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다. 법관양성소 설립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개교 117년 되는 해다.

하지만 아쉽게도 동문이나 재학생이나 교직원을 막론하고 ‘확장된 개교’에 익숙한 것 같지 않다. “개교 백 얼마” 하면 무덤덤하나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까지 한다. 역사를 바로 잡았으면 바뀐 역사를 기정사실화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

개교 원년의 시발점이 된 법관양성소, 그리고 최초 졸업생 중 한 분인 一醒 李 儁열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효과적일 것이다. 지상과의 단막극도 좋고, ‘역사 스페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좋다.

조선을 정복하려는 열강의 각축 속에서도 법치를 꿈꿨던 현군 고종,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만방에 알리려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파됐다 순국한 李 儁열사의 진면목.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진취적이었던 선배들의 우국충정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보너스까지.

KBS스페셜에서라도...

尹 在 錫
프레스인 이사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지금 틀림없이

成 贊 慶(영문50-57)
성균관대 대우교수·시인

지금 틀림없이 마귀놈이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랑스런 나의 발명의 품목
<해야 할 일에 직선으로 달려가기>가
이렇게 지연될 까닭이 없다.

해야 할 일에 직선으로 달려가자!
그런데 그 순간 등이 격렬하게 가려워지고
못 참고 굶는 동안 영감적인 묘상(妙想)이 떠올라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짓 아닌가!
요새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는나고?
그런데 마귀는 현실이다.

특히 심리의 미로에선 마귀 빼곤 설명이 안 된다.
직선은 어림없고 늘 지그재그로 가는 인생.
유혹 뒤엔 반듯이 마귀놈이 숨어 있다.

동문칼럼

밖에서 불어오는 한류를 통한 한국어 열풍은 한국어의 미래를 밝게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서 21세기는 한국어의 세기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이 가능하다. 영국은 어학 연수생을 통한 영어 산업이 2위 규모라는데 우리도 한국어 산업을 2위 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작년에 우리의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로 산업혁명의 원조인 영국을 능가했으니 한국어 산업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려면 한국어의 품격부터 높여야 한다.

한국어의 품격은 품격 있는 언어생활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류의 열풍과 달리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한국어는 중병을 앓고 있으니 우리는 국어가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의 말과 글은 아파트 명칭, 간판들에서처럼 외국어, 외래문자로 덮였고, 영화, 게임,

비로 흡수해 언어폭력까지 행하게 된다.

둘째,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자. 인터넷 검색보다 독서의 사색을 먼저 하도록 키우자. 인터넷 검색이 얼마나 우리의 사색하는 힘을 퇴화시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독서와 사색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힘도 생긴다. 국어교육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부터 모어의 힘을 부모로부터 배우도록 책을 읽어 주고 같이 대화하는 것, 이웃 어른에게 인사부터 잘하는 것이 국어 교육의 시작이다.



閔 賢 植
(국어교육73-77)
국립국어원장

셋째,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 예전에는 교실에서 ‘바른말 고운말’의 표어도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10여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학력자 자국어 능력은 한국이 꼴찌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지도층의 글쓰기부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단어의 발음과 표기와 의미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문장은 간결한 논리로 썼는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없는지 반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의 가나다 상담전화(1599

국어생활의 반성

만화 등도 비속어로 넘쳐 청소년 73%는 욕설이 대화이다. 내용에서도 진실과 사실에 기초한 언어보다 선동, 저주, 비방의 거짓언어가 홍수를 이룬다.

이제 이런 한국어의 중병을 치료하려면 한국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첫째, 인간관계의 기초인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母語로 어려서부터 풍성히 가르치자. 모어를 잘해야 외국어도 잘한다는 외국어학자들의 결론을 믿고 옆집 아이가 외국어 잘한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모어 교육부터 부모가 풍성한 사랑의 시와 노래의 한국어로 채우자. 자녀에게 사랑을 통해 믿음과 긍정과 꿈의 언어가 항체로 형성되지 않으니 비속어를 무방

-9979 국어친구)에 많이 걸려오는 질문의 하나가 ‘없음 - 없음’ 중 어느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다. 명사형은 ‘-음’이라는 기본 문법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런 원리 교육을 하지 않고 문법을 암기교육으로 가르치니 국어 교육부터 반성해야 한다.

법치는 문치에서 시작된다. 헌법과 문법은 나라의 두 기둥이다. 우리가 세대, 계층, 이념 갈등으로 불통과 불협이 극심한데 모어를 정확하게 효과적이며 논리적으로 사용하고 사랑과 믿음의 배려와 격려의 말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국어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바르게 수행할 때 소통과 준법의 법치도 바르게 설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李 在 忠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B112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蔡耕王,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邊榮顯, 朴鉉載



본회 林光洙회장이 “모교가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이 계속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회장단 상견례... 부회장 및 관악회 이사 등 선임

본회 고문에 李御寧등문 추대 논설위원·관악대상 위원 위촉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24대 회장단 상견례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총동창회가 있도록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임원 간부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열과 성을 다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모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해”라며 “모교가 겨레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며 임원들도 계속해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동창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장학빌딩 건립기금 마련 등에 수많은 동문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동창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동문간 네트워크도 향상되고 있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서울대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23대 회장단의 업적을 소개하며 “모교 개교 원년의 뿌리를 찾은 것과 동창회관 건립, 관악인론인회 결성, 특별과정동창회의 활성화 등은 이 자리에 모인 동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이 내용을 집약해 볼 때 서울대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23대 회장단에게 ‘에이 플러스’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4대 회장단은 에이 플러스로 만족하지 않고 트리플 에이를 만드실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뒤 “모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총동창회가 더욱 더 융성하고 동문들의 단결이 서울대 발전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李御寧(국문52-56 중앙일보 상임고문)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부회장 61명을 대표한 孫一根(법학51-64 한국일보 고문)상임부회



孫一根상임부회장(右)에게 선임장 전달



孔大植관악회 이사(右)에게 선임장 전달



裴仁俊논설위원(右)에게 위촉장 전달



尹勤煥관악대상 운영위원(右)에게 위촉장 전달

장과 재단법인 관악회 18명의 이사를 대표한 孔大植(기계공학56-60 대영테크시스템 사장)이사에게 선임장을 전달했다.

또 동창회보 논설위원 49명을 대표한 裴仁俊(철학70-74 동아일보 주필)논설위원과 관악대상 운영위원 31명을 대표한 尹勤煥(농학50-54 前농수산부 장관)동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원 명단 4~6면 참조)

이어 金在淳 명예회장이 신임 회장단의 발전을 기원하며 “조국과 모교 앞에 무한 책임을 재확인하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민찬 중에 李炯均부회장은 ‘죽은 뒤 시신을 땅에 묻고 빈 두 손은 무덤 밖으로 보이게 하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소개하며 “죽음 앞에 인간은 권력과 명예, 재물 등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에 담긴 빈손의 의미를 잊지 말고 모교와 동창회를 더욱 지원하자”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姜信浩·白文基·李御寧고문,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金貞植·韓斗鎭·尹勤煥·琴震鎬·朴熙伯·崔斗衡·成百詮·李相赫·金宗鎬·金讚淑·李相周·郭永馱·孔大植·朴成勳·李炯均·姜寅求·卞柱仙·朴容晔·金慶漢·吳明·辛鉉雄·裴仁俊·鄭八道 부회장, 朴英俊감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는 吳然天 총장, 鄭喆永 학생처장, 南益鉉 기획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에서는 李禮植·趙弼濟·曹基浩·權永昊·鄭啓泳·朴明潤·金秉順이사, 金一燮감사 등이 자리했으며, 상임이사인 朴武益인문대동창회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 成鶴상대동창회장, 崔明珍생활대동창회장, 申秀貞음대동창회장, 李哲雨경대원동창회장, 金貳煥연대원동창회장, 崔鴻圭교대원동창회장, 李世漢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장, 姜英植미래융합기술과정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본회 논설위원인 북한인권시민연합 金好俊고문, 언론중재위원회 徐玉植중재위원, 한국경제신문 朴聖姬논설위원, 평화통일재단 曹炳喆고문, 중앙일보 金鎮國논설위원실장, 조선일보 李先敏오피니언부장, 연합뉴스 金永燮정보사업국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榮)

관악회 제114차 이사회서 孔大植상임이사 임명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장학빌딩내 증식당 메이차이에서 제11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林光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의 운영이 많이 복잡해지고, 교육청의 규제와 통제도 많이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라며 “재단의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악회 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 심의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李吉女이사와 金一燮감사를 재선임했다. 또 재단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임 이사에



孔大植(기계공학56-60 본회 부회장)동문을 선임했으며, 참석자들의 의결을 거쳐 孔이사를 상임이사에 임명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林光洙이사장, 孫一根·李禮植·曹基浩·權永昊·鄭啓泳·朴明潤·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 등이 참석했다.

본회 李在忠사무총장 임명

지난 6월 1일자로 본회 신임 사무총장에 李在忠동문(사진)이 임명됐다.

충청북도 충주 출신인 신임 李사무총장은 청주고를 나와 모교 법대 법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보은군수, 중원군수,



정부기록보존소장, 행정자치부 의정국장·지방자치국장 등을 거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임 朴善壽사무총장은 임기만료로 지난 5월 31일자로 퇴임했다.

총동창회 새 임원진 명단

지난 3월 16일 정기총회 결의에 의해 제24대 회장단이 새로 구성됐다. 이에 고문(13명), 회장단(67명),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21명), 동창회보 논설위원(49명), 관악대상 운영위원(31명),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동창회장(48명)을 소개한다. (입학년도순)

동창회 고문 및 회장단		 고문 權彝赫 의학 41 - 4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	 고문 河永基 정치 44 - 48 前한국은행 총재	 고문 白樂院 의학 44 - 51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고문 金相廈 정치 45 - 49 삼양사 회장	 고문 姜信浩 의학 46 - 52 동아제약 회장
 고문 白文基 조소 46 - 50 예술원 회원	 고문 金鍾泌 사회교육 46입 前자유민주연합 총재	 고문 具平會 정치 47 - 51 E1 명예회장	 고문 金泳三 철학 47 - 51 前대통령	 고문 李賢宰 경제 48 - 53 호암재단 이사장	 고문 鄭元植 교육 48 - 54 유한재단 이사장	 고문 金德柱 법학 52 - 56 前대법원장·변호사
 고문 李御寧 국문 52 - 56 중앙일보 상임고문	 명예회장 金在淳 경제 47 - 52 샘터사 고문	 명예회장 吳然天 정치 70 - 74 모교 총장	 회장 林光洙 기계공학 48 - 52 임광토건 명예회장	 상임부회장 孫一根 법학 51 - 64 한국일보 고문	 부회장 金貞植 전자공학 48 - 56 대덕전자 회장	 부회장 李俊行 섬유공학 48 - 54 Junees상사 회장
 부회장 韓斗鎭 의학 50 - 56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부회장 尹勤煥 농학 50 - 54 前농수산부 장관	 부회장 琴震鎬 법학 50 - 58 국제무역경영연구원 회장	 부회장 劉鍾海 법학 50 - 54 연세대 명예교수	 부회장 徐廷和 법학 51 - 55 前국회의원	 부회장 李吉女 의학 51 - 57 가천대 총장	 부회장 李海遠 행정 51 - 55 한국우드워드 회장
 부회장 朴熙伯 의학 51 - 57 박희백정형외과 원장	 부회장 崔斗衡 행정 51 - 55 성원개발 회장	 부회장 裴命仁 법학 52 - 56 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부회장 成百詮 토목공학 52 - 56 한국해외기술공사 회장	 부회장 李世中 행정 53 - 57 현대합동법률 변호사	 부회장 鄭然世 토목공학 53 - 57 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	 부회장 李相赫 행정 54 - 58 고려합동법률 변호사
 부회장 金宗鎬 행정 55 - 59 SCOUT의원연맹 명예총재	 부회장 李金器 약학 55 - 59 일동후디스 회장	 부회장 尹世榮 행정 56 - 61 SBS 명예회장	 부회장 丁海昌 법학 56 - 60 좋은합동법률 대표변호사	 부회장 李竣鎔 경제 56 - 60 대림산업 명예회장	 부회장 金讚淑 치의학 56 - 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부회장 李相周 교육행정 56 - 60 前성신여대 총장
 부회장 郭永勳 토목공학 56 - 60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부회장 鄭潤煥 임학 56 - 62 일성화학 사장	 부회장 孔大植 기계공학 56 - 60 대영테크시스템 사장	 부회장 孫京植 법학 57 - 61 CJ그룹 회장	 부회장 洪性大 수학 57 - 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부회장 安秉勳 행정 57 - 61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부회장 崔秉烈 행정 57 - 64 前국회의원
 부회장 南正鉉 건축 57 - 61 대우테크 고문	 부회장 吳仁錫 행정 58 - 62 Philip Investment 회장	 부회장 禹仁性 기계공학 58 - 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	 부회장 朴成勳 기계공학 58 - 63 모간 사장	 부회장 孫吉丞 상학 59 - 63 SK텔레콤 명예회장	 부회장 金殷宗 경제 59 - 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부회장 李炯均 정치 59 - 64 한국기자협회 고문
 부회장 趙炳祐 섬유공학 59 - 64 유풍 회장	 부회장 姜寅求 수의학 59 - 64 대영EEC 회장	 부회장 劉常夫 토목공학 60 - 64 포스코 고문	 부회장 卞柱仙 영어교육 60 - 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부회장 金明子 화학 62 - 66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	 부회장 朴容眩 의학 62 - 68 연강재단 이사장	 부회장 朴浩田 경영 62 - 66 삼덕 회장

 부회장 金慶漢 법학 62 - 66 KH법률연구소 변호사	 부회장 金平祐 법학 63 - 67 서일합동법률 변호사	 부회장 吳 明 전자공학 64 - 66 웅진그룹 고문	 부회장 辛鉉雄 지리 64 - 68 재단법인 웅진 이사장	 부회장 金鍾燮 사회사업 66 - 70 삼익악기·SPECO 회장	 부회장 邊榮進 건축 66 - 70 홍익대 교수	 부회장 洪錫炫 전자공학 68 - 72 중앙일보 회장
 부회장 文昌克 정치 68 - 72 중앙일보 대기자	 부회장 金仁圭 정치 69 - 73 KBS 사장	 부회장 李鍾基 경영 69 - 73 상영무역 사장	 부회장 張重桓 의학 69 - 76 장중환산부인과 원장	 부회장 裴仁俊 철학 70 - 74 동아일보 주필	 부회장 鄭夢準 경제 70 - 75 국회의원	 부회장 愼昌宰 의학 72 - 78 교보생명보험 회장
 부회장 鄭忠始 화학공학 72 - 76 세진에이엠 회장	 부회장 鄭八道 AIP 1기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감사 朴英俊 상학 60 - 66 에일컨설팅그룹 회장	 감사 朱成民 법학 69 - 73 김&장법률 변호사	 사무총장 李在忠 법학 72 - 76 前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재단법인 관악회 임원	
 이사 金炯珠 토목공학 46 - 50 삼안전회 회장	 이사 李禮植 약학 46 - 49 前극동제약 명예회장	 이사 趙弼濟 조선항공 46 - 50 세양주택 회장	 이사 申明珪 생물교육 48 - 54 前문영여중 교사	 이사 曹基浩 화학교육 54 - 58 기호물산 회장	 이사 權永吳 약학 55 - 59 덕홍상사 회장	 이사 安聖哲 행정 58 - 63 유니온테크 회장
 이사 張世一 전기공학 59 - 63 일성 회장	 이사 鄭啓泳 상학 61 - 66 원일전선판매 회장	 이사 朴明潤 보대원 74 - 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	 이사 金炯周 전자계산 78 - 82 모교 발전기금 상임이사	 이사 金秉順 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이사 張慶作 AMP 33기 현대아산 사장	 감사 金一燮 경영 64 - 69 한국형경영연구원 대표
林光洙이사장, 孔大植상임이사, 孫一根·李吉女·洪性大·李炯均이사, 朴英俊감사는 본회 회장단 겸임.			동창회보 논설위원			
 논설위원 安炳燦 신대원 71 - 75 언론인권센터 명예이사장	 논설위원 丘月煥 사회 60 - 67 순천향대 초빙교수	 논설위원 宋鎮赫 정치 61 - 65 언론인	 논설위원 金好俊 사회 61 - 65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논설위원 洪性萬 사회 61 - 67 前경향신문 사장	 논설위원 李五峰 교육 61 - 70 아주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논설위원 安國正 사학 63 - 70 채널A 부회장
 논설위원 李成俊 고고인류 64 - 69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논설위원 朴明珍 불문 65 - 69 모교 교육부총장	 논설위원 李慶衡 사회 66 - 70 내일신문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李元馥 건축공학 66입 덕성여대 석좌교수	 논설위원 金鍾勳 농경제 67 - 72 前매일경제TV 부사장	 논설위원 徐玉植 동양사학 69 - 73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논설위원 高永才 정치 69 - 74 前경향신문 사장
 논설위원 李元燮 외교 69 - 76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논설위원 姜天錫 사회 69 - 76 조선일보 주필	 논설위원 嚴基永 사회 70 - 74 경기문화재단 대표	 논설위원 朴時龍 농경제 71 - 75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논설위원 辛京珉 사회 71 - 75 국회의원	 논설위원 尹在錫 화학교육 71 - 75 프레시안 이사	 논설위원 鄭世溶 철학 72 - 76 내일신문 논설주간
 논설위원 李東植 영어교육 72 - 76 KBS비즈니스 감사	 논설위원 朴聖姬 가정관리 73 - 77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논설위원 曹炳喆 사회 73 - 77 평화통일재단 고문	 논설위원 朴勝俊 중문 74 - 78 인천대 초빙교수	 논설위원 許英燮 지리교육 74 - 78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	 논설위원 金玄浩 독문 74 - 80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논설위원 鄭興實 수의학 75 - 81 모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논설위원 金亨珉 외교 76-80 SBS 논설위원	 논설위원 李東官 정치 76-81 前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	 논설위원 李啓聖 정치 77-81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논설위원 金鎭國 정치 78-85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위원 崔英勳 법학 78-83 동아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 吳在錫 외교 78-85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논설위원 李容式 토목공학 79-83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위원 李先敏 국사학 80-84 조선일보 오피니언부장	 논설위원 金昌均 경제 80-84 조선일보 논설위원	 논설위원 李相起 서양사학 81-87 아시아N 대표	 논설위원 蔡耕玉 경영 86-90 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	 논설위원 許文明 가정관리 86-90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논설위원 金永燮 원자핵공학 87-95 연합뉴스 정보사업국 차장	李炯均·文昌克·金仁圭·裴仁俊논설위원은 본회 회장단 겸임.	
관악대상 운영위원			 운영위원 徐桂淑 기악 56-60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운영위원 金鳳九 조소 58-63 이화여대 명예교수	 운영위원 胡文赫 법학 68-72 모교 교수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朴鍾根 전기공학 69-73 모교 평의원회 의장	 운영위원 鄭喆永 농업교육 77-81 모교 학생처장
 운영위원 南益鉉 경영 81-85 모교 기획처장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동창회장 孫一根운영위원장, 白文基·金炯珠·尹勤煥·李吉女·李海遠·金哲洙·李世中·李金器·金讚淑·李相周·郭永勳·孔大植·洪性大·孫京植·南正鉉·金殷宗·李炯均·朴英俊·朴容眩·辛鉉雄·金一燮·金仁圭·金炯周·李在忠운영위원은 중북.			 인문대 朴武益 철학 62-67 한국갤럽 대표	 사회대 李祐宰 경제 72-76 시일무역 사장		
 자연대 金胄弼 동물 63-67 동국대 석좌교수	 간호대 洪京子 간호 62-66 모교 간호학과 명예교수	 공대 尹友錫 광산 63-67 진성티이씨 회장	 문리대 崔永喆 정치 54-58 서경대 총장	 법대 辛永茂 법학 63-67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상대 成耆鶴 무역 66-70 영원무역 회장	 생활대 崔明珍 가정교육 65-69	
 수의대 李角模 수의학 64-69 동방 대표	 약대 千文宇 약학 61-65 동국대 약대 학장	 음대 申秀貞 기악 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치대 金秉燦 치의학 69-75 김병찬치과 원장	 대학원 崔鍾庫 법학 66-70 모교 법학부 교수	 경대원 李哲雨 농경제 61-65 롯데백화점 대표	 교대원 崔鴻圭 교대원 65-67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보대원 金旻永 보대원 72-74 前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언대원 金貳煥 신대원 72-75 한국자기주도학습개발원장	 행대원 金基炳 행대원 67졸 롯데관광개발 회장	 환대원 李萬儀 환대원 73-75 前환경부 장관	 AIP 朴泳求 AIP 31기 금호전기 회장	 ACAD 李弼雨 ACAD 14기 동일그룹 회장	 ABP 李相鎬 ABP 1기 前기업은행 문래동지점장	
 SGS 曹白一 SGS 6기 공간세라믹 대표	 CHCN 朴英淑 CHCN 3기 前가정간호사회 서울지회장	 HPM 張燦基 HPM 8기 해동재단 회장	 AMPP 孫一洙 AMPP 3기 건일엔지니어링 회장	 AIC 李世漢 AIC 11기 GT&T 대표	 AFB 崔炳五 AFB 3기 형지어패럴 회장	 AMPFRI 宋明儀 AMPFRI 24기 고래푸드 대표	
 ACPMP 徐綜郁 ACPMP 3기 대우건설 사장	 FIP 姜英植 FIP 4기 엘림시스 대표	 GLP 李鍾大 GLP 16기 한백CNT 대표	 ALP 文炳昌 ALP 12기 씨케이그룹 회장	 ANMP 嚴玉鳳 ANMP 1기 前상계백병원 간호부장	 SPARC 鄭淳伯 SPARC 17기 위너콤 대표	 AFP 崔同珠 AFP 4기 현대산업개발 고문	
 ASP 李官洙 전기공학 68-72 명지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IFP 崔銘洙 IFP 2기 매크로인터내셔널 대표	 BCP 白原寅 BCP 1기 이미지백스트 대표	 관무회 柳東林 공업교육 68-72 두루무역 대표	 ROTC 姜實根 자원공학 70-74 원일커피아 대표	농대 鄭潤煥·미대 金鳳九·사대 卞柱仙·의대 朴容眩·AMP 金鍾燮·관악언론인회 裴仁俊회장은 중북.		



본회 林光洙회장은 시상식에서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14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林光洙회장·朴宗信교수 우승

모교 발전 기원하며 동문·교수 화합의 한마당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19일 인천그랜드CC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한 제14회 사은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모교 교수, 본회 임원 등 총 68명이 참가해 17조로 나뉘 경기를 치렀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본회 朴英俊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 및 기념 만찬에서 林光洙회장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며 학문 연구에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과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창회 임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서울대 폐지론과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에 맞서고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통해 모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찾는 데 기여한 총동창회는 모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다”며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모교가 법인화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 모교가 동창회를 위시해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힘을 모아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건배제에서 본회 琴震鎬(법학50-58)부회장은 “총동창회의 중흥을 이끈 林光洙회장의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사은골프대



남자 롱기스트 金聖勳동문(右)



여자 롱기스트 朴賢愛교수(右)



남자 니어리스트 鄭潤煥동문(右)



여자 니어리스트 張素媛동문(右)

회의 발전이라 생각한다”며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취지의 이 행사에 모교 교수님들의 더 큰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 朴榮敏(체육교육62-66) 명예교수는 “모교 은사들을 초청해 사은골프대회를 여는 학교는 전 세계에 서울대밖에 없을 것”이라 전한 뒤 “모교 선생님들과 林光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차명예교수의 경기 결과 발표에 이어진 시상식에서 모교 교직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朴宗信(섬유공학75-79)교수가 ‘동창회장배’를, 동문들 중 우승을 차지한 林光洙회장이 ‘모교 총장배’를 각각 수상했다. 메달리스트는 그로스 72타를 친 법률사무소 원원 河光龍(법학76-80)대표변호사가 수상의 영

예를 안았다.

롱기스트상 남자 부문은 2백50m를 기록한 유현개발 金聖勳(GLP 18기)대표, 여자 부문은 2백5m를 기록한 모교 간호학과 朴賢愛(간호76-80)교수가 수상했다. 니어리스트상 남자 부문은 2.1m를 기록한 일성화학 鄭潤煥(임학56-62)대표, 여자 부문은 10.8m를 기록한 모교 평생교육원 張素媛(국문80-84)원장에게 수여됐다.

이날 골프대회를 위해 林光洙회장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그랜드CC 시설을 제공했다. 또 본회 李吉女부회장이 찬기 세트 80개를 참가자 전원의 기념품으로 제공했으며, 金鍾燮부회장이 디지털 피아노 1대와 기타 3대를 경품으로 기증했다.

그밖에 鄭八道부회장과 성문전



동창회장배 朴宗信교수(右)



모교 총장배 林光洙회장(右)



메달리스트 河光龍동문(右)

자 辛東烈(GLP 3기)회장이 각각 1백만원을 협찬했다. 또 나노카보나 申一汕(AMPFRI 14기)회장이 구이용 숯판 10개를 경품으로 기증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모교 작곡과 李敦膺(작곡75-82)교수가 디지털 피아노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또 기타 3대의 행운은 본회 李海遠부회장, 본보 金鎮國논설위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朱振吾(기계설계78-82)전무에게 돌아갔다. (載)

〈조별 우승자 명단〉

◆OUT코스

1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鄭正佶(행정61-65)원장, 2조 : 한국우드워드 李海遠(행정51-55)회장, 3조 : 한국기자협회 李炯均(정치59-64)고문, 4조 : 조선해양공학과 成宇濟(조선공학82졸)교수, 5조 : 재단법인 웅진 辛鉉雄(지리64-68)이사장, 6조 : 세일종합기술공사 黃鎬瑩(토목공학58-64)회장, 7조 : 간호학과 朴誠愛(간호66-70)교수, 8조 : 음대 全商直(작곡82-86)부회장, 9조 : 서강대 金樂洙(기계설계78-82)교수

◆IN코스

1조 : 한승산업 羅重華(행정55졸)前대표, 2조 : 한중실크윅 沈載益(잠사56-63)대표, 3조 : 농생대 李鶴來(임산가공75-79)학장, 4조 : 작곡과 李敦膺(작곡75-82)교수, 5조 : 보성치과의원 許允姬(치의학74-80)원장, 6조 : 제약학과 李相國(제약81-85)교수, 7조 : 중앙일보 金鎮國(정치78-85)논설위원실장, 8조 : 체육교육과 金善振(체육교육77-81)교수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회장 : 골프장 사용 및 식음료 일체
- 李吉女부회장 : 찬기 세트 80개
- 金鍾燮부회장 : 디지털 피아노 1대, 기타 3대
- 鄭八道부회장 : 협찬금 1백만원
- 辛東烈 성문전자 회장 : 협찬금 1백만원
- 申一汕 나노카보나 회장 : 구이용 숯판 10개

www.kolmar.co.kr



한국콜마, IR52 장영실상 수상!

생체지질 농축 나노캡슐 이용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그 다음은 뭘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해도 당신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슈잔드린 추출 기술, 이데베논, Lift-up 세럼 등의 항노화 기술로
피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과학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콜마의 모든 기술은 시간과 싸우는
항노화 기술과 함께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을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오늘도 한국콜마는
다음 단계의 새로운 피부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www.koreanair.com



두 개의 런던으로 초대합니다.

오전의 히드로 공항에서 오후의 개트윅 공항까지 -
대한항공이 더욱 특별하게 모십니다.

대한항공 런던 주 10회 운항
(히드로 공항 매일 운항 / 개트윅 공항 주3회 신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宋宗義동문 부부, 裴慶淑동문, 宋永煜동문, 金慶漢회장, 趙舜衡동문 부부

법대동창회

辛永茂회장 선출·법대인 시상

법과대학동창회(회장 金慶漢)는 지난 5월 22일 서울 대평로2가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0회 자랑스러운 법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金慶漢회장과 모교 鄭宗燮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金滉植(법학67-71)국무총리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널리 확산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 헌정질서가 정착되는 데 크나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모교가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축사했다.

이어 傘壽와 古稀를 맞이한 10회, 20회 동문을 대표해 金桓洙(법학52-56)동문과 金榮漢(법학62-66)동문에게 축수패를 증정했다. 또 제20회 ‘자랑스러운 법대인’으로 선정된 裴慶淑(법학49-54)인하대 명예교수, 趙舜衡(법학54-64)국회의원, 宋永煜(법학56-61)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宋宗義(법학59-64)前법제처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제34대 회장에 辛永茂(법학63-67)대한변호사협회장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張石和(법학64-68)·尹相日(법학73-77)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琴震鎬·李大淳·李相赫·丁海昌·李載厚 前회장, 모교 법대 鄭宗燮학장, 金哲洙명예교수, 崔鍾庫·丁相朝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崔斗衡·李海遠·金宗鎬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대동창회

등반대회서 자긍심 향유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4월 28일 서울 관악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관악산 연주암과 연주대를 등반하며 공대 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향유했다. 등반을 마친 후에는 모교 공대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許鎭奎(금속공학59-63)前회장, 白恩沃(전자계산81-85)컴퓨터공학과동창회장, 센트럴씨티 申善浩(응용수학66-70)회장이 후원했다.



鄭潤煥·辛東韶·梁豪承·尹汝斗동문, SM엔터테인먼트 한지섭 감사(李秀滿동문 대리), 李鶴來학장

농생대동창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여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5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에서 3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거행된 정기

및 동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金秉燦(치의학69-75)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조합했다”며 “이는 여러 세대의 동문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鄭潤煥회장의 인사 및 모교 농생대 李鶴來(임산가공75-79)학장의 축사, 2012년 상록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 공고가 있었다.

이어 제10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식에서 辛東韶(임학53-57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梁豪承(축산65-69 한국월드비전 회장)·尹汝斗(농공67-71 농생대 동창회 상임부회장)·李秀滿(농공71-78 SM엔터테인먼트 회장)동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산림청 金南均(임학78-82)차장과 정식품 孫憲秀(식품공학76-80)대표에게 축하패를, 모교 농생명공학부 崔鉉哉(축산73-80)교수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행사에 참가한 동문 및 가족 2백여 명은 골프 라운즈와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만찬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동창회는 행사 기간 동안 불우 이웃돕기 성금과 네트워크차과 적결 성금함을 운영해, 모인 기금을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춘천지부동창회

정기모임서 장학금 전달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5월 15일 춘천시내 중식당 회영루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林正根회장이 이다솔(사회교육10입)·오예준(인문계열2 11입)·허남주(인문계열1 12입) 등 재학생 3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모교에 진학한 지역 출신의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부 재학 4년간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의대동창회

도봉산서 봄맞이 등산모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차容眩)는 지난 5월 20일 서울 도봉산 우이암에서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을 비롯해 4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등산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도봉산 입구에서 단축코스과 풀코스 조로 나눠 산행한 뒤 옛골토성에서 오찬을 즐겼다.

陳泰薰(의학84졸·서울유니언이비인후과 원장)동문이 진행한 2부 순서에서는 차容眩회장과 姜大熙



학장, 서울시사회 林秀欽(의학73-79)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미주동창회 韓敬秀(의학73졸)·李桂錫(의학73졸)동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을 위해 두산그룹에서 고급수건 5백개와 스포츠양말 5백50세트를 제공했다.

상대동창회

산행대회·사은의 밤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 앞 버들골에서 동문 및 가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친선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접수를 끝낸 뒤 가족 단위 혹은 동기별로 왕복 2시간 코스의 관악산 등반을 진행했다.

등산이 끝난 후 도시락과 김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애주가들은



위해 동창회에서 준비한 생맥주와 안주, 鄭光燮(상학66-74)동문이 협찬한 막걸리를 즐겼다.

이어 丁炯培(상학64-68)사무국장의 사회로 산행대회 경품 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협찬물품 중 스쿠터, 백화점상품권, 영화예매권, USB메모리 등을 당첨자에게

전달했다. 이 가운데 1등 상품인 스쿠터는 裴亨燮(무역81-85)동문이 당첨됐는데 동창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스승의 날 기념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약대동창회

동문바둑대회 개최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宇)는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동 송천기원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權景坤(약학56-60)자문위원은 千文宇회장을 대신한 개회사에서 “앞으로 바둑을 애호하는 젊은 동문들도 많이 참석해 선배들과 기

술을 공유하며 친목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조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郭炯俊(약학06-10)동문, 준우승 金相喆(제약73-77)동문, 3위 孫善一(약학59-64)·孫景伍(약학66-70)동문

▲B조 : 우승 金貞柱(약학59-63)동문, 준우승 金一盛(약학60-64)동문, 3위 沈寬燮(약학52-56)·金康造(약학64-68)동문

생활대동창회

‘웃음과 건강’ 특강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5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대 최병오홀에서 申敏燮(가정관리78-82)교수의 ‘웃음과 건강’ 공개 특강을 개최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6월 8일 등촌동 시니어스 기양타워에서 가정교육과 특강 시간을 가졌다. <載>

의학을 전공했지만 좋아하는 피아노를 선택해 모교에서 기악과 교수로 오랫동안 음악과 함께 했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월간 ‘피아노음악’의 편집인 겸 발행인, 쇼팽협회장, 한국베토벤협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鄭鎮宇

손을 하거나 연구실에 출·퇴근하고 있다. 이외에도 후배들의 연주회를 감상한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음악회나 모임으로 리듬을 타듯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은 좋다.

또 좋은 클래식 음악은 언제나 심신을 평안하게 한다. 자신이 좋아해

• 클래식 들으면 심신 평안

건강에는 반복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매일 오전 시간에는 책을 보고, 이후에는 학생들 레

서 즐길 수 있는 음악감상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의학45-49)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심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덕분에 매년 건강검진에서 신체나이가 실제보다 20세가량 더 젊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 동안 관절 운동을 한다. 온몸의 관절을 각각 1백회씩 돌리거나 굽혔다 펴므로써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정신을 가다듬고 긴 심호흡을 10여 회 실시한다.



金許男

꾸준한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남과 다투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은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늘 안온한 마

• 평정심 유지, 건강 선결조건

힘을 불어넣는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 약 5천 보 정도를 걷는다.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운동이 모두 끝나면 앉아서 신체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꼼

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잘 하면 1백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행정49-52)신라문화선양회 이사장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리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작게 접히고,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미래를 활짝 열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꿈의 아몰레드'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만듭니다.

홈페이지: www.samsungsmd.com 블로그: www.samsungamoled.net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AMSUNG



관악언론인회

본회 林光洙회장 초청 만찬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5월 8일 본회 林光洙회장의 초청을 받아 각 언론사 간사를 포함해 30여 명이 서울 필운동 한식당 예조에서 만찬을 즐겼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인의 책임과 위상을 지키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앞장서 온 관악회의 존재는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앞둔 모교와 동창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교와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재선출된 林光洙회장에게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총동창회와 하나가 돼 모교의 발전을 적극적

으로 돕고 동문간의 화합을 다지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劉鐘海·李相赫·孔大植·李炯均부회장이 참석했으며, LA지부동창회장을 지낸 方錫勳동문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본보 文昌克·徐玉植·裴仁俊·尹在錫·鄭世溶·李東植·朴聖姬·金亨珉·李啓聖·金鎮國·吳在錫·李先敏·李相起·蔡耕玉 논설위원이 동석했으며, 각 언론사 간사·부간사를 맡고 있는 李康德(KBS)·鄭在權(한겨레신문)·崔勝旭(한국경제신문)·申然琇(채널A)·權石泉(중앙일보)·愼藝莉(JTBC)·洪智英(SBS)·李佳穎(중앙일보)·하임숙(채널A)동문이 참석했다.

AMP동창회

金鍾燮회장 취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5월 1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2회 자랑스러운 교수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모교 경영학과 金榮珍(경영67-71)교수가 자랑스러운 교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입 회장에 삼익약기 金鍾燮(사회사업66-70·AMP 33기 본



金光石 前회장, 金榮珍교수, 金鍾燮회장

회 부회장)회장을 선출했다.

동창회는 이날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다.

ACAD동창회

국민대토론회 열어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弼雨)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의 행정침해의 예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국민대토론회’는 黃震夏(ACAD 42기)국회의원이 후원했으며 건강한 국가와 행복한 국민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발전하는 한일관계’를 주제로 제4회 국정포럼을 열었다.

농화학과동창회

관악산서 등반대회

농화학과동창회(회장 徐靑源)는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산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동문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악산 일부 구간을 등산한 후 서울 대학동 녹두거리에 위치한 한라산기슭에서 식사를 하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등반 후 행사에는 40여 명의 동문이 더 모여 성황을 이뤘으며 응용생명화학 전공 2학년 재학생들과 교수진의 첫 회식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총선 당선자 축하모임 가저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任晟準)는 지난 5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9대 총선 당선자 축하 모임을 가졌다.

任晟準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 진출한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당선된 동문 7명의 의정활동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金慧媛作

빛 상자 (Light Storage), 75×75×210cm, 폴리 프로필렌·LED

<작가약력>

▲1976~1980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1984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2 마이아오와대 석사학위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 건축공동위원회 심의위원
▲성남시 도시디자인 심의위원
▲한국색채학회 부회장
▲現동서울대 실내디자인과 교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具範謨(정치52-56)고문은 축하사에서 “사회구조와 사고방식의 변화 속에서도 당선에 성공한 동문들이 더욱 돋보이고 자랑스롭다”며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인식했기에 당선된 만큼 좋은 정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당선 소감을 듣는 자리에서 辛鶴用(정치71-75)동문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정치사에 남는, 잘 뽑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며 “후배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축하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즐기는 한편 당선 의원들에게 국민과 동문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격려했다.

농공장학재단

기금 93억원으로 확대

농공장학재단(이사장 金景旭·모교 농생대 교수)은 지난 4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기부금 25억4천1백30만원이 증액된 총 93억5백만원의 기금을 운영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대된 기부금은 尹大燮(농공49-55 성보실업 부회장)동문이 현금과 주식 25억3천4백30만원, 李弘柱(농공61-69 한경대 교수)동문이 5백만원, 尹炳鎬(농공61-69)·鄭琮薰(농공77-81 모교 농생대 교수)동문이 각각 1백만원을 출연해 조성됐다.

농공장학재단은 정관에 따라 2012학년도 1학기에 모교 농생대 지역시스템공학 및 바이오시스템 공학을 전공하는 90명의 재학생에게 1억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학생 중 대학원생 29명 전원에게는 전액장학금을 제공했다.

재단은 내년부터 학기당 총 1백여 명의 재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載)

살모사와 땅꾼

선생님이 첫 수업시간에 자기소개를 했다.
“대학교 다닐 때 내 별명이 살모사였다.
떠들거나 까불면 용서 안 한다!”
그러자 삼돌이가 반가워하며 일어나서 대꾸했다.
“선생님, 제 별명은 땅꾼입니다.”

장수 비결

어느 기자가 취재차 장수마을에 갔더니 105세 어르신이 제쳤다.
그의 장수를 기념하는 생신평타에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장수 비결이 뭐니까?”
“안 죽으니깐 오래 살지!”
“장수하시니까 좋은 점이 무엇이던가요?”

“나를 욕하는 놈이 없어! 다 죽어서.”
“그럼 불편하신 게 뭐가 있나요?”
“으~응, 나한테 외상을 주는 놈이 없어!”

조조할인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극장에 갔다.
장비가 표를 사러 매표소에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유비, 관우, 조조가 매표소에 가 보니 장비가 매표소 앞에 서서 씩씩거렸다.
장비가 셋을 보자 하는 하소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딴여! 조조만 할인된대!”

(독자제보 촬영)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대학원동창회 崔鍾庫회장
(모교 법학부 교수)

지난 5월 14일 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모교 법학부 崔鍾庫(법학66-70)교수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崔회장은 “회장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총동창회에서 빠르게 찾아주니 고맙다”며 “많은 동문들이 서로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소감 한 말씀.

“그동안 대학원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법대동창회에서 문호회, 화우회 등 문화 모임을 추진했던 경험을 살려서 대학원 동문들도 잘 모이고 단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찬성입니다. 그런데 특수대학원이 교육대학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임원진이 구성되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대원동창회 회장단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해야겠죠.”

- 동문들에게 한 말씀.

“현재 모교 대학원생들은 무엇보다 불확실한 진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동창회는 학문 후속세대인 우리 후배들

SPARC동창회 鄭淳伯회장
(위너콤 대표)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켜 모든 기수의 동문이 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밖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동창회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회원이 참여 가능한 재능기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상임수석부회장으로 쉼 金鍾顯(19기)대표, 수석부회장으로 코리스법진 李敎煥(18기)대표와 아이넷TV 朴煥熙(20기)회장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6개 부서로 편제된 집행부에는 1기부터 20기까지 폭넓은 기수의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글로벌 경제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변

“동문의 다양한 대화 창구 마련”

“대학원동창회는 ‘서울대 아카데미즘’의 상징으로 한국의 지성을 대변하는 실체입니다. 현재 약 1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주된 사업은 장학금 지원·신입회원 환영식·회보 발간 등입니다. 대학원동창회보를 총동창회보처럼 콘텐츠를 다채롭게 구성하고, 젊은 동문들에게는 이메일로 발송하는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추진 사업은.

“문화 모임을 기획하고, 가을에 관악캠퍼스 바들골에서 동문들과 모교 보직교수, 대학원 재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자연을 만끽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신적으로 위축돼 있는 후배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대학원동창회와의 통합문제는.

“동창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부분은

이 보람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본부와 같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민족의 대학으로 모교가 지녀온 오랜 학문연구의 전통이 발전하도록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崔회장은 1972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사상사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환갑기념 드로잉전, 독일 대학에서 시화전을 개최할 정도로 회화와 시 창작에 조예가 깊다. 법대동창회 고문, 대학원동창회 부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한인 동문회장으로 활동해왔기에 동창회 운영에 대한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는 평을 받는다. 현재 한국인물전기학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榮)

“전 회원의 재능기부 사업 추진”

“동창회장을 맡게 돼 영광입니다. 재임하는 1년 동안 동창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평소 신념인 섬김과 겸손, 순종의 마음가짐을 더욱 확실히 지켜나가며 매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전체 회원 수는 6백30명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문들은 최고의 대학에서 만나 기초자연과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창회는 동문간 교류 및 모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재임 중 역점사업은.

“먼저 장학연구사업을 추진해 장학생을 지원하고 졸업 후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의 운동 및 송년

수들이 상존하는 사회에서 SPARC는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창회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사업이 더욱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아마추어는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성숙된 프로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프로가 됩시다.”

鄭회장은 현재 자동차용 안테나를 연구 생산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는 위너콤의 대표를 맡고 있다. 기독교 신자인 鄭회장은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투자라는 경영철학을 견지하고 있다. 벤처기업 중 소기업정장 표창, 자동차의 날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載)

대한민국 국토 9만 9천 km²
세계의 바다 3억 6천만 km²
바다의 꿈은 국토보다 3천 6백 배 더 큼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꿈입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삶입니다.

바다와 함께 한 67년 역사
바다와 함께 한 3만 해양대인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해양종합대학,
한국해양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 한국해양대학교



www.hhu.ac.kr



한국해양대 제6대 박한일 총장
대학원(해양학과) 86년 졸업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성과지수 4년 연속 1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2011년 국·공립대학 취업률 1위('다'그룹)
2011년 부산·울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

지구가 타고 있어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지구에겐 미안하지만 차를 버릴 수는 없겠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자동차 과학으로
현대모비스가 지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driving science



화제의 동문

가천대 길병원 李明哲원장

모교 의대 핵의학교실에서 30년 간 활동하며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핵의학계를 세계 정상 수준으로 일군 李明哲(의학67-73)교수가 명예퇴임 후 지난 3월 가천대 길병원장 겸 메디컬캠퍼스 부총장에 취임했다.

정든 모교를 떠나 자택까지 병원 근처인 인천으로 이사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李동문은 길병원의 ‘큰 길(BIG GIL) 운동’을 소개하며 “다양한 분야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통합과 리더십의 길을 창조해 길병원과 가천대를 아시아지역의 허브병원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시아지역 허브병원 추진”

“처음엔 평생 터전이었던 연건동을 떠나서 좀 어색했는데 막상 출근해 보니 오래 전부터 여기 살았던 것처럼 금방 익숙해졌어요. 핵의학과 융합기술 분야를 연구하고 임상하던 시절도 좋았지만 이제 병원장과 부총장으로서의 새로운 생활도 기대되고 설렙니다.”

李동문은 한국의 핵의학전문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내 최초로 PET(양전자 단층촬영)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우리나라 핵의학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세계 핵의학회장 지낸 핵의학계 거장
‘큰 길(BIG GIL)운동’을 펼치며 새 인생 시작

또 세계핵의학회장·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 초대 의장을 역임한李동문은 지난 2008년부터 제2대 세계동위원소기구(WCI)회장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핵의학 분야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활동에 힘쓰고 있다.

“세계 핵의학계에서 우리나라 리더십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에 핵의학을 진흥시키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학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순간들이었죠. 이제 핵의학자로서의 삶은 잠시 접어두고 병원 일에만 매진할 계획입니다.”

1958년 산부인과로 시작한 길병원은 반

세기만에 병상규모 전국 5위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국가지정 암센터·가천대 뇌과학연구소·이길여암당뇨연구원·바이오노노연구원 등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의사들이 집결해 병원의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길병원은 연구 환경과 시설 면에서 훌륭한 인프라를 갖춰 국내외 석학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 뇌과학자인 趙長熙(전자공학55-60 가천대 뇌과학연구소장)박사나 장수의학의 권위자인 朴相哲(의학67-73 길병원 연구원장)교수가 대표적인 경우죠.”

최근 길병원에 미국 MD앤더슨암센터

金義信(의학60-66)종신교수, 내분비내사내과 명의 金光源(의학66-72)교수, 혈관조영치료의 대가 朴在亨(의학66-72)교수, 유전의학계의 대모 김현주 박사 등이 합류해 ‘인맥의 달인’으로 불리는李동문의 네트워크를 실감케 했다.李동문은 모교 발전기금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기금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교 발전에도 공헌한 바가 크다.

“달인이라기보다 유명하신 분들이 길병원의 미래와 비전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지요. 사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인물과 교류하니 자연스럽게 좋은 분들과 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

죠. 진정한 네트워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관계를 쌓아야 인맥이라고 할 수 있죠.”

변화를 꿈꾸는 ‘인맥의 달인’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동문들에게 건강법을 소개해 달라고 하자 “잘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어요. 운동 후에 샤워하고 나서 몸과 마음을 단장하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있죠. 또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산으로 트레킹을 다닙니다. 골프도 좋아했었는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뺏겨서 골프를 끊고 틈이 나면 가족들과 함께 등산과 음악회를 다니곤 하죠.”

학자·교수·의사·병원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한국 의학계에 한 획을 그은李동문은 새로운 인생의 서막에서 동문들에게 각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누구나 다 하는 일보다는 어렵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비전을 새우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Creative=Change’입니다. 매일 변화를 시도하고 혁신하는 것이 창조의 기본자세인 것을 잊지 말고 나날이 새로운 시간들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榮)

예술의 전당 牟喆敏사장

예술의 전당은 지난 1988년 국내 최초 복합아트센터로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개관 이래 25년 동안 최고의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한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에만 1천19개의 공연과 1백37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2백50만여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로서 역할을 발휘해 온 牟喆敏(행대원82-87)동문이 지난 4월 13일 예술의 전당 제13대 사장에 부임했다.牟동문은 “국민에게 더 친숙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을 갖춘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문화예술 콘텐츠·시설·서비스의 삼박자를 조화시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외파견 중 예술에 매료돼”

취임 두 달여를 맞이한牟동문은 예술의 전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내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한 뒤 “새로운 계획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며 빈틈없



국제감각 갖춘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
공공성 회복으로 사회적 책임 완수

는 모습을 보였다.

牟동문은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교통부에서 관광 관련 업무를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牟동문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에 보다 심취하게 된 것은 30대 후반 문화부 과장으로 파리에 파견을 나가면서부터였다.

“30대에 처음 파견을 나갔던 프랑스에 2004년부터 다시 주재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으로

근무했어요. 당시 현지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2006년 한·프랑스 수교 1백20주년의 해를 맞아 1년간 1백20여 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하는 등 우리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고자 노력했죠.”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 기사장을 수여받은牟동문은 국내로 돌아온 후 행정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하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는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공공성 회복이라는 가치를 세우들었다.

“예술의 전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를 50%나 감면시켰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좌석 등급에 혼란을 야기하는 좌석(P석, VIP석)을 없애고 R-S-A-B-C석 등으로 구성된 표준좌석 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연 전 리허설을 공연자 동의하에 청소년들이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예술적 재능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 무료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무료 교육

“한국문화원장 재임 초기 파리시립극장에서 현대무용을 관람했는데 평일임에도 객석이 가득 차 있어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외길을 걸어온牟동문은 동문들에게도 예술의 전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예술의 전당 부근에 살면서 우면산 등산길에 종종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곤 했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친숙해질 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의 깊은 향기를 부담 없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載)

화제의 동문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2nd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2012. 6. 27. ~ 29. 고양시 킨텍스



AFOLIA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





주 제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
부제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법제적 대응

주요의제 경제·사회발전과 법제, 기업 법제, 다문화 법제, 농촌근대화
중소기업 육성, 토지·건설, 녹색성장, 공법학회 의제 등
중국정법대 :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학술대회(중국법제, 한·중FTA)

참석대상 아시아 법제기관 대표, 주한외국인, 국내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

공동주최 법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공법학회

공동주관 법령정보관리원(아시아법제포럼 지원사무국),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문의사항 아시아법제포럼 준비기획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Tel 02.2100.2745 / 2714 <http://afolia.moleg.go.kr/kr>





쉽게 법령 찾고 상담하는 ‘법제처 앱’ 대히트

동문들 찾아서

鄭善太 법제처장



鄭善太(법학75-79)법제처장은 한마디로 소탈하고 편안했다. “연휴에 모내기를 하고 와서 얼굴이 좀 탔다”며 수줍게 말하는 그에게서 법조인 특유의 딱딱함이나 고답성을 느낄 수 없었다. 무겁고 어려운 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鄭처장을 지난 5월 29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대담 : 蔡耕玉(매일경제신문 뉴스속보부장)·논설위원

— 집무실에 책도 많고 학구적인 느낌이 드네요.

“조금 전에 베트남 법무부연구소 방문단과 면담을 나눴어요. 베트남에는 법제처가 없고 그 연구소에서 헌법부터 모든 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가 권위주의 시절부터 민주화까지 다양하게 세팅돼 있으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상당히 고생하면서 만든 법인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만 보면 여러 나라 법 안봐도 되고 한국이 민주화되고 선진화돼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더군요.”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의 잘못된 법령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례들을 고려해서 우리 기업에 친숙한 대한민국의 분야별 선진법제도를 각국에 수출해 정착시키는 일을 법제처에서 하고 있죠. 이런 법제수출의場이 바로 ‘아시아 법제포럼(AFOLIA)’입니다.

지난해 11월 1차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오는 6월 27~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이라는 주제로 분과회의를 강화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기후변화 등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해당 분야의 최신 법제정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참가자가 관련 분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다방면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도 부담 없이 참여(온라인 무료 등록 <http://afolia.moleg.go.kr/kr>)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 법제처에 대해 소개해주시다면.

“법제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창설돼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법제 전문 부처입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을 심사하고, 행정기관과 일반 국민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명확하게 법을 해석해 드림으로써 사전에 잘못된 법령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글로벌

• 鄭법제처장은

1956년 광주 출생으로 1979년 모교 법학과 졸업 후 1991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 24회 행정고시와 1981년 23회 사법시험을 통과하며 1986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대검찰청 마약과·환경보건과 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법이 우리 생활에 친숙하도록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해왔다. 부인과 사이에 1남1녀를 두었다.



6월말 제2회 아시아 법제포럼 개최

행시·사시 합격후 법조인생 걸어와

선진 법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선진법제도를 구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 정보 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운영하고 국민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등 법치주의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2만불 소득, 5천만 인구)클럽에 가입하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제 분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경쟁력에 비해서 법제도 경쟁력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인의 정서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전부 이웃사촌이죠. 이런 부분이 온정주의로 연결되다보니 법치 확립이 지연되고,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개방화가 되면서 상대 국가와 협력하고 상생해야 하니 우리도 자

연스럽게 법의 기준이나 수준이 선진국과 경쟁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제처가 선진법제 전략을 수립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죠.

법제처는 내용적으로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민을 위한 법규가 탄생되도록 품질을 높이며, 이러한 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입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로비스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가 공식화돼 있죠. 모든 면담과 일정을 공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오픈해서 토론하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입법하려고 했었는데 법 감정상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법치제도 운영에 관해 이해관계나 집단이 투쟁해져야 그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아직은 밝은 부분

보다 어두운 부분이 많죠.”

— 누구나 쉽게 법령을 찾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법제처 앱’이 인기폭발이라고 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잘 구축돼 있던데.

“취임 이후 ‘법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실생활에 상식처럼 꼭 알아두어야 할 법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죠.

법 용어나 법령이 어려워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나라 4천1백여 개의 법령을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정해서 한글과 영문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식의 표현, 어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다듬어 지금은 8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 접속량이 18만명으로 정부 부처의 포털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영문 법령을 비롯해 가족생활 법령, 학교폭력도 ‘스쿨로(School Law)’라고 해서 따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니 각자 필요한 분야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질의응답 코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이신 동문들도 법제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시고 스마트폰 어플도 활용하셔서 어려운 법이 아닌 누구나 공감하는 좋은 법이 탄생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검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만약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면.

“모교에 입학했을 때 교양제도가 강화되면서 신입생 시절은 전공의 구애 없이 다양한 학문의 수업을 들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상과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막상 대학에 와서 보니까 제가 수학에 참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대신 차선책으로 법대에 진학했어요. 그때 교양과목 중에 고고학과 지리학이 참 재미있었는데 민일 법대에 안 갔으면 그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못한 공부를 아들(정훈렬 경영12입)이 대신 모교 경영대에 입학해서 하고 있죠.”

—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를 놓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출마를 고민하는 아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지만 대의적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경험해봐라’고 회장 출마를 권유했었죠.

그 후에 아들이 학생회장이 돼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편하게 공부도 못하니까 힘들었지만, 공부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줄 수 없는 더 큰 가치, 국민·국가·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전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젊을 때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더 큰 가치에 매진하고 생각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邊榮顯기자)

www.blackyak.co.kr

3,400m에서 히말라야의 컬러를 만나다

수만 가지 컬러, 수만 가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히말라야처럼
히말라야의 다양한 컬러를 품은 블랙야크
이제 블랙야크의 다양한 컬러와 함께
당신만의 야크멘타리를 시작하세요

히말라야 오리지널 - 블랙야크

YAKMENTARY



工四會

모교 공과대학 4회 졸업생들의 모임인 공사회(회장 朴鍾澈)는 그 이름부터 공대 출신 동문들의 모임답게 에두르지 않고 솔직하다. ‘공(工)’대 ‘4(四)’회 ‘모임(會)’이라서 ‘工四會’라 하니, 마치 정밀기계의 인풋과 아웃풋이 그렇듯 논리 정연하다.

공사회는 동문간의 유대를 맺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7년 朴鍾澈(화학공학46-50)초대 회장을 필두로 창립됐다. 화학, 전기, 전자(통신), 기계, 토목, 항공, 건축, 금속, 조선, 섬유, 광산 등 11개 학과 졸업생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올해로 35년의 세월이 흘러 적지 않은 회원이 작고하는 등 인원의 변동이 많지만 아직도 30여 명의 회원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이후 수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쳐 현재는 초대 회장이었던 경희대 朴鍾澈 명예교수가 회장을, 대한항공 李元馥(조선항공46-50)前전무와 협창통상 金忠鎭(전기

얼라이드 시그널社의 물질전달연구실장 및 프로젝트장으로 근무하며 한국 공학인으로의 명성을 쌓았다.

朴회장은 “한국 정부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며 자금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던 1964년 미국에서 서부뉴욕지역 교민회장을 맡고 있던 내게 정부 인사가 도움을 청했다”며 “1967년 정부 초빙으로 귀국해 포스코의 건설, 삼성의 반도체공업 육성, 한화의 석유화학 육성,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건설, 한전의 원자력 발전시설 도입 등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회고했다.

李元馥동문은 전쟁 당시 공군 정비장교로 근무하며 국산 1호 경비행기를 직접 설계 제작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李동문은 “아무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전쟁통이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 성공했다”며 “당시 李承晩대통령이 감격스러워하며 ‘부활호’라 명명한 이 비행기는 현재 등록문화재 411호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공사회 회원들은 긴 세월 동안 모임을 유지하며 쌓은 깊은 우의를 자랑스럽게 생각

치대 여자동문회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 가정에서는 엄마이자 아내로, 병원의 원장이자 의사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 여성 동문들이 하나 둘 모였다. 바로 치의학과 선후배들로 이뤄진 치과대학 여자동문회 임원 모임 자리다.

2001년 창립된 치과대학 여자동문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崔明鎭(치의학75-81 로템치과의원 원장)동문을 선출했다. 崔회장은 “우리 모임은 초기 회장이셨던 車惠榮(치의학61-67 차혜영 치과의원 원장)동문이 모교 치대에 똑똑한 여성들이 많은데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신호탄이 됐다”고 말하며 10년 전을 회고했다.

치과대학 여자동문회는 단순 친목 모임 같지만 1980~90년대 한국 사회에 여권 신장을 가져온 전문 의료인들이 많다. 이 모임은 치과 의사·치대 교수·병원의 경영자

를 경험했던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다”며 “대학 교육 과정에서 부족할 수 있는 사회 진출 이후 현실적 고민들과 바람직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도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다. 열띤 토론을 듣는 내내 모교 치과대학 여자동문회에서만 할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프로그램의 탄생이 기대됐다.

치과대학 여자동문회는 동창회의 다른 모임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 치의학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결혼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과 봉사를 하고 있다.

張卜淑부회장은 “우리 동문회에는 봉사 활동 외에도 연간 행사로 정기총회와 이사회, 골프대회나 야유회, 사랑방 모임 등 있다”고 소개하며 “좀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대 4회 출신 애국·애교심 남달라 매년 친목 모임서 모교·사회 현안 논의

모임탐방

결손가정 청소년에 치과봉사 펼쳐 8월에 ‘멘토·멘티 프로그램’ 추진

공학47-50)회장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李元馥·金忠鎭운영위원과 함께 만난 朴鍾澈회장은 “매년 2~3회 이상의 친목 모임을 가지고 서로의 안부, 다양한 사회 현안, 모교 소식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혼란했던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의 나라를 일군 주역들이었던 만큼 지금도 국정 현안이나 남북문제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지곤 한다”고 전했다.

공사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기였던 1950년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회원 중 과반수는 6·25전쟁 당시 육·해·공군의 젊은 장교로 참전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나라를 지켜냈다. 이들은 전쟁 이후 국가의 공업육성 정책에 따라 산업 각계에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朴회장은 모교 공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해 한양대의 전신인 소화공업전문학교 전임강사 및 고려전지 연구원으로 일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장교로 임관해 육군본부 작전국에서 작전장교로 복무했으며 전후 도미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및 퍼듀대에서 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석유화학 연속공정의 선구자로서

하고 있다. 朴鍾澈회장은 “회원 모두가 동기이자 친구인 덕분에 자연스럽게 인화가 유지됐고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받았다”며 우정을 과시했다.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강한 단결력을 자랑하는 공사회 회원들은 모교와 동문에게 대해서도 강한 애정을 드러냈다.

朴鍾澈회장은 “현재 중국의 급격한 발전 배경은 이공계 출신의 고위 관료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라며 “공대 출신 관료를 찾아보기 힘들고 학생들 역시 공대를 기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모교가 이공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元馥동문 역시 “지금의 교육으로 공학 박사는 되더라도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자는 되지 못한다”며 “모교 공대부터 나서서 공학도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만드는 일’에 흥미를 가진 사람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 국가 발전의 초석을 쌓은 공사회 회원들. 비록 세월이 흘러 후대에 그 대임을 물려줬지만 나라와 모교를 걱정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어느 장정 못지않은 힘과 열정이 실려 있었다. 〈載〉

로 치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를 탄생시킨 그룹이다.

모임에는 약 8백명의 여성 동문이 소속돼 있으며 회원들은 서울여자치과의사회 許允姬(치의학74-80)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구회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문회 부회장이자 목동에치과병원 柳宗希(치의학82-88)원장은 “여성이라면 개인차가 있지만 누구나 결혼과 출산의 시기에 자신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며 “치과 병원 경영은 단순하게 확립될 수 없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치의학 분야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되짚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치대 여학생들이 전공 분야에서 취업과 진로 문제에 직면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자 모교 치과대학에서는 여자동문회에 SOS를 요청했다. 모교의 요청에 따라 동문회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고민하는 여자 후배들을 위해 오는 8월에 출범할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다.

張卜淑(치의학84-90)부회장은 “후배들이 졸업 후 가정과 병원 또는 수련의 생활

이어 郭禎玟(치의학85-91)총무는 “앞으로도 조금씩 더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며 소식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및 SNS를 활성화해 각자의 자리에서 발전을 이루는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동문회에서는 여자 치과의사들이 선후배간의 유기적인 교류의 장을 확보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임원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웃음꽃을 피웠다.

崔明鎭회장은 “모교에 입학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간절히 원해도 들어오지 못한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하고 동문들이 항상 나누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헌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대학 여자동문회.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와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삶에 감사하며, 이제는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교를 빛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봄꽃보다 싱그러운 5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榮〉



趙弼濟·李圭東·尹張燮·鄭寅晔·李元馥·明泰鉉·黃宗屹·陸宏修·林大喆·張學淳·朴勝燾·朴鍾澈동문



河貞善·崔明鎭·柳宗希·高銀淑·韓金男·郭禎玟·張卜淑동문

모교 아시아 대학평가 4위 도쿄대 제치고 역대 최고 순위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가 조선일보와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4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과학기술대가 차지했으며 2위는 싱가포르국립대, 3위 홍콩대 순이었으며, 모교가 최초로 도쿄대(8위)를 제치고 그 뒤를 이었다. <표 참조>

이번 평가는 연구능력(30%) 학계평가(30%) 졸업생 평판(10%) 국제화(10%) 등의 분야를 점수화해 순위를 매겼다. 모교는 연구능력(논문 발표 수·피인용 횟수) 부문과 졸업생 평판에서 도쿄대와 간격을 줄였으며, 국제화 분야에서 도쿄대에 크게 앞섰다.

국내 순위에서는 모교가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KAIST(7위)와 포스텍(9위)이 아시아 대학 톱 10에 올랐다. 아시아 대학평가 이후 한국 대학 3곳이 10위 안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그밖에 한국 대학은 연세대가 19위, 고려대 21위 등으로 꾸준한 상승폭을 나타냈다.

2012 아시아 대학평가

2012년	대 학(지난해 순위)
1	홍콩과학기술대(1)
2	싱가포르국립대(3)
3	홍콩대(2)
4	서울대(6)
5	홍콩중문대(5)
6	베이징대(13)
7	카이스트(11)
8	도쿄대(4)
9	포스텍(12)
10	교토대(7)
11	오사카대(8)
12	홍콩시티대(15)
13	도쿄공업대(9)
14	도호쿠대(9)
15	칭화대(16)
16	연세대(18)
17	난양공대(17)
18	나고야대(14)
19	푸단대(21)
20	국립대만대(21)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평가는 아시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기관 평가이며 올해는 국내 대학을 포함해 아시아 15개국 4백6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Spring Concert’ 음악회 열어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5월 2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그동안 따뜻한 관심을 보내온 기부자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Spring Concert 2012’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고액 기부자와 동반가족, 학내 구성원 등 1천6백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관악캠퍼스의 음악 향기를 만끽했다.

기악과 金泳律(기악76-80)교

수가 지휘하는 모교 윈드앙상블과 성악과 朴美惠(성악79-83)·朴賢宰(성악86-90)교수를 비롯해 가수 백지영 씨와 스위트소로우(Sweet Sorrow) 그룹이 출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모교는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오페라 공연과 학부모 캠퍼스 투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李惠日 학장, 崔相弘 회장, 吳然天 총장, 金起東 부회장, 韓民九 前 학장

공과대학

崔相弘·金起東 동문 ‘발전공로상’

공과대학(학장 李惠日)은 지난 5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22회 ‘발전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자로 한일MEC 崔相弘(기계공학54-58)회장과 두산건설 金起東(공업교육70-74)부회장을 선정했다.



‘심장뇌혈관병원’ 조감도

모교 병원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모교 병원(병원장 丁憲原)은 지난 5월 16일 서울 혜화동 옛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리에서 ‘심장뇌혈관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5천㎡ 규모로 심혈관질환센터, 뇌혈관질환센터, 말초혈관질환센터 등이 들어서며 2014년 5월 완공 예정이다.

丁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장뇌혈관 병원에서는 진단 치료와 연구개발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발병하면 거의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심장뇌혈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평생 동반자가 되는 것이 이 병원의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丁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심장뇌혈관 병원에서는 진단 치료와 연구개발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발병하면 거의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심장뇌혈관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평생 동반자가 되는 것이 이 병원의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미술관

피터 엔슨 뮤즈展

미술관(관장 權寧傑)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피터 엔슨의 뮤즈들’ 전시회를 개최한다.

패션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피터 엔슨(Peter Jensen)은 덴마크 출신으로 세계 3대 패션스쿨 중 하나인 세인트 마틴을 졸업했

다. ‘피터 엔슨’ 브랜드를 운영하며 그동안 25명의 뮤즈들에게 영감을 얻어 런던·파리·뉴욕컬렉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에게 영감을 준 여배우와 역사 속 인물, 가족을 포함해 뮤즈인 여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80-9407>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을 비롯해 공대 李惠日학장 등 교수 및 관계자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崔회장은 본회 장학발당 기금으로 1억2천6백만원을 쾌척해 ‘崔相弘특지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설비 분야의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상용화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金부회장은 197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건설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체득한 기술을 국내의 분야에 확대 발전시켜 엔지니어이자 경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과대학은 1989년부터 모교와 공대의 발전에 기여하고 산업기술과 사회에 공헌해 우리나라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해 ‘발전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법대 丁相朝학장 임명



지난 6월 1일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법학부 丁相朝(법학78-82)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丁학장은 1959년생으로 1987년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丁학장은 1992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법학도서관장,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환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대원 權純晚원장 임명



지난 5월 11일 보건대학원 원장에 보건학과 權純晚(경영83-87)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權원장은 1964년생으로 미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1989년 석사학위, 1993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權원장은 1997년 모교에 부임 후 모교 노인보건정책연구센터 소장, 한국노년학회 이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부회장, 중국 북경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榮>

희망장학금

“어려운 재학생들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희망장학금 사용 용도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학생에 전액 등록금 면제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매월 생활비 지급
-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학생에 해외수학비용 지원
- ※ 가계소득 5분위 이하 : 환산소득 연 4,093만원 이하(통계청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기준)

희망장학금 참여 방법

- ◆무통장 입금(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079-17-000136
 - 신한 100-014-328209
 - 우리 1006-601-280134
- ◆온라인 약정 : www.snu.or.kr
- ◆전화참여 : 02)880-8004, 02)871-8146
- ◆ARS 후원 060-700-8004(1통당 5천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吳然天

삼영화학 李鍾煥회장

중앙도서관 기금 6백억원 약정



지난 5월 11일 삼영화학 李鍾煥(AMP 7기 관정이중환교육재단 명예이사장)회장(사진)이 모교 중앙도서관 신축기금에 6백억원을 약정했다.

2000년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을 설립한李회장은 최근 모교 학문 발전에 근간이 되는 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갖게 돼 남은 여생동안 우리나라 학문 성장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李회장은 평소 “나라나 기업 살림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키운다”며 “교육재단 장학생 중 노

벨상 수상자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은 그동안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중·고생 등 3천9백여 명에게 1백87억원, 유학생 7백40명에게 6백1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현재 재단의 출연재산은 8천억원에 이르며 연간 장학 사업은 1백2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1974년 도서 1백50만권을 소장한 규모로 건립된 모교 중앙도서관은 현재 2백50만권의 책을 보유해 과포화 상태이며 시설 또한 낙후돼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학생들과 모교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모교는 지난 3월부터 중앙도서관 모금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대 기부 역사상 최고의 금액을 기록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李회장의 기부금으로 모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 신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故 盧炳秀동문 유족

발전기금 10억원 쾌척

지난 4월 6일 故 盧炳秀(공법 83-87 연원투자개발 전무)동문의 모친 강옥채(연원투자개발 대표)여사가 모교 발전기금에 10억원을 쾌척했다.

강옥채 여사는 협약식에서 “신장병이 있지만 상태가 호전적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마음이 너무 슬펐던 차에 항상 열정적이고 큰 꿈을 가졌던 아들의 뜻을 이뤄주고 싶어 서울대에 기부를 결심했다”며 “아들의 이름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니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아들도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채 여사는 아들 盧동문이 생전에 진료를 받았던 가톨릭대 성모 병원에도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故 盧동문은 생전에 본회 장학비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약정하고 6백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盧炳秀장학기금’을 설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재학생의 소리



‘건강한 밥상’ 제공하는 채식동아리

저는 올해 학부를 졸업하고 건축환경계획연구센터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한 金智民입니다. 2년 전 환경적인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며 채식동아리 공발에 가입했습니다. 우유, 달걀, 생선은 먹지는 페스코(pesco-vegetarian)로 시작해 지금은 동물성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비건(vegan)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발은 기존의 서울대 채식인 모임에서 회원들 간 의견차이로 2009년 7월에 결성된 동아리로 2009년 9월부터 회장을 맡은 康大雄(영문01-11)동문이 졸업 후에도 지금까지 공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공발이 단지 학내 채식인만을 위한 동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매 끼니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의미에서 ‘채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및 각종 암 등 생활습관병이 급증하는 현 시

점에서, 채식 식단을 우리 모두의 ‘건강한 밥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식 식단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상’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활동이라고 여깁니다. 2004년부터 시



범운영된 학생회관식당(1식당) 채식메뉴로 학내에서는 수요일 점심만 채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발의 활동이 도움이 됐는지, 생활협동조합(생활)에서 교내 채식 수요가 많아진다는 인식을 해 2010년 가을에 언덕방(2식당)에 채식뷔페가 신설됐습니다. 이어 생활은 2011년 여름부터 전망대(3식당) 3층에 채식코

너 ‘채사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교내 구성원 누구라도 원한다면 언제나 평일 점심에 건강한 채식식단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녁을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고, 매점과 카페에서 선택할

金智民

(건축07-12) 모교 석사과정

수 있는 메뉴가 거의 없는 등 어려운 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공발은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지 못하고 공발만의 공간을 가지지도 못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및 공장 실사를 실시하여 품질이 우수하게 판명되는 합격품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orea Testing Laboratory



우수상품엔 ‘K-마크’가 있습니다.

K-마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마크’ 인증제도는 국내 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므로써 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조달청 가점 혜택과 기술우대 보증 혜택, 외국기관의 품질인증 서비스 우선 지원 등 ‘K-마크’에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대
상
품
목

1. 공산품과 신개발품
2.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제품 및 부품
3. 정밀기술경진대회 입상제품

인
증
혜
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시 가점(30점)
-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심사시 가점
- CE마킹 등 주요 외국기관(43개국 91개 기관)의 품질인증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최대 10억)

KT서 경영대 기금 조성
교수 위해 5억원 기부

지난 5월 22일 KT(회장 李錫采 경영64-68)가 모교 경영대 석학 기금으로 5억2천만원을 기부했다.

모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약정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과 李錫采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경영대학 KT 석학 교수 기금’을 설립했다.

발전기금은 대학과 기업이 상호 역량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다.

커피 전문 기업 ‘팬도로시’
도서관 기금 1억원 출연

지난 5월 26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 (주)팬도로시(대표 장인수)가 모교 중앙도서관 신축 건립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모교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모교 吳然天총장과 장인수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2009년 설립된 팬도로시는 충남대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榮)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소개팅을 시켜주면, 친구는
 “내 취향은 니가 제일 잘 안다”
 회식장소를 예약하면, 부장님은
 “권대리가 고르는 집은 항상 최고야!”
 참치캔을 따주면, 고양이는
 “나옹! 나아옹!!”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다
 마치 효성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효성에서 일한다



(주)효성 산업자재PG
 권유리 대리

타이어코드 세계 1위
 스판덱스 세계 1위
 소형 ATM 세계 1위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콩트 릴레이

너 구 리

禹 漢 鎔(국어교육68-75)

모교 교수·소설가



스승의 날이었다.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다. 칠갑산에 내려가 사는 변태민이 틀림 없었다. 여자 구하는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재촉이 불갑더니, 스승의 날은 꼭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을 거듭한 끝이었다. 강의가 있는 날이라서 좀 그렇다고 멍칫거리고 있는데, 변태민은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를 달리 붙였다.

“스승의 날, 스승 대접을 받으려면 하루 강의 제껴두소. 선생 없는 빈 강의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스승 귀한 줄을 깨달아. 몸값 올리라구.”

하긴 오래 끌 일이 아니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타고난 분지복에 따라 결정될 일이

는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 보았다.

변태민이 전화질을 시작한 것은 일 년 전이었다. 상배를 당한 뒤 49제 직후였다. 49제를 그는 천도제라 했다. 애들 면목도 있고 하니 친구로서, 천도제에 꼭 와 달라는 부탁이었다. ‘콩밭 때는 아낙네’로 유명한 칠갑산 장곡사에서 천도제를 올린다고 했다.

“천도제라면 가족끼리 하는 행사 아닌가?”

“거 참, 외로워서 그러누만.”

“외롭다? 당신 나이가 몇인데, 회갑 다 돼 가지고, 아직 외로움을 타?”

“연박사는 몰라, 아니 내 외로움은 아무

“어딜 그렇게 서둘러요?”

“칠갑산 친구, 그 너구리가, 외롭대나 고독하다나…”

“몰라요, 냉장고에다가, 까불지마라 그렇게 써 붙일 거니까.”

헛헛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언젠가 친구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밖에 나가는 아내가 집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경고, 조심할 행동지침 목록이라고 했다.

아내를 대동하기는 자리가 어울리지 않았다. 혼자 차를 몰고 출발했다. 장곡사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심어 가꾼 벚꽃은 이제 꽃눈이 통통하게 부풀기 시작하고, 마을 집들 마당에 그리고 밭 가장자리에 산수유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그날이 만우절이었다. 상배를 알려와 문상을 다녀온 것이 2월 10일 경이었으니 대개 썬이 그렇게 되겠다 싶었다. 사람은 가고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이려니, 코끝에 알키한 기운이 어렸다.

천도제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변태민은 두 아들 내외를 불러 인사를 시켰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원자력공학을 공부해서 어느 연구소에 일한다고 했다. 작은아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대학에 자리를 잡아 생활한다고 했다. 며느리들은 모두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말끔한 서양 미인들이었다. 천도제를

돌아 먹음직했다. 술은 약간 노릿한 향이 감돌았으나 맛은 제법이었다.

“하필 저런 늙은이 집엘?”

“젊은 애들은 겹도 나고, 도무지 증생을 다룰 줄을 알아야지.”

전에 먹어 본 적이 없는 음식이고 술이었다. 오소리 뼈로 담근 술이고, 탕은 너구리탕이라고 했다. 너구리를 먹는다면 개를 먹을 것은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참한 여자가 있기는 한데, 개를 먹는 인간은 퇴짜를 놓는단 말이지.”

변태민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산짐승처럼 번득하고 이쪽을 쳐다봤다.

“사실 말이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그놈들 덕이야.”

학생 때 앓은 폐결핵이 재발해서 거의 몸이 망가질 즈음에 아내와 함께 칠갑산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당시 아들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어른들 보살필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변태민은 자기가 칠갑산에 와서 몸을 회복하고 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연치유라는 걸 생각했지. 말이 근사해서 자연치유니 내추럴 힐링이니 하지만, 사람이 짐승 한가지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네. 원리는 간단해. 먹이사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사는 거라.”

요컨대,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잡아 먹었다는 것이다. 그는 잡아 먹었다는 대목에서 들짐승처럼 눈을 번득이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으르렁거리는 시늉까지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잡았던 짐승들 이름을 죽 읊어댔다. 너구리, 오소리, 살가지, 담비, 수달 등을 비롯해서 청설모, 다람쥐, 고라니, 노루, 사슴, 멧돼지까지 그야말로 안 잡아먹은 게 없는 셈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짐승이 됐는지 시도 때도 없이 발정을 한단 말이네.”

변태민은 사타구니를 틀어쥐고는, 노상 이렇다니까, 죽겠다구, 그러니 여자가 필요한 거구, 자네한테 부탁을 하는 것 아닌가. 날 좀 살려주게 하는 말은 처연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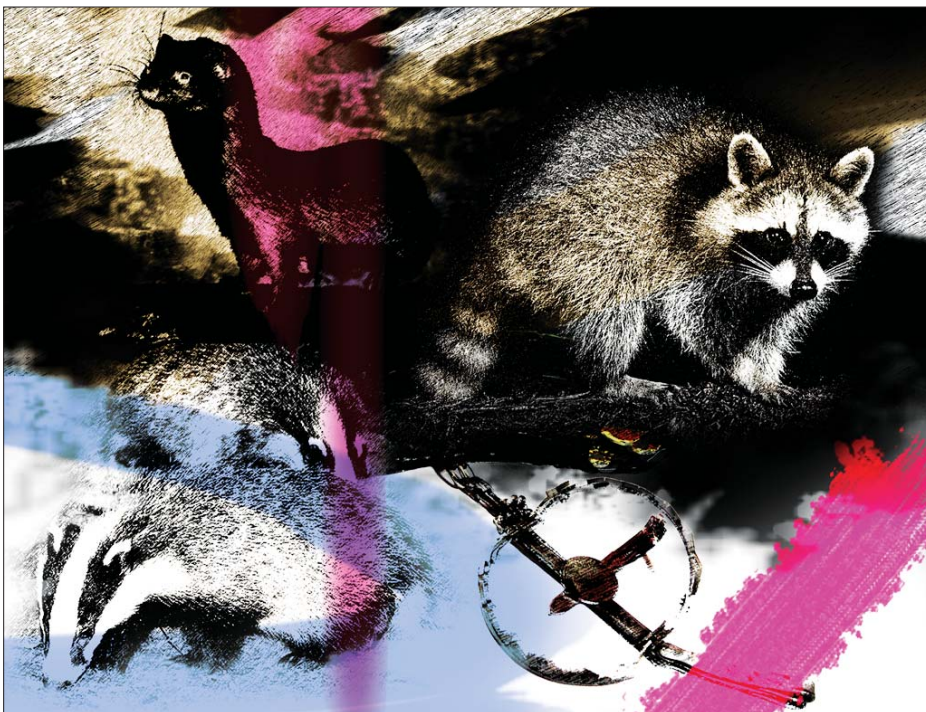
“병이 나았으면, 짐승 잡아먹는 거부터 끊게나.”

“내가 증생 고기 끊으면 사람은 틀림없이 구해 줄라나?”

“그렇게 해 봅세.”

그렇게 약조가 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 구선정 여사를 대동하고 내려가는 길이었다. 아내는, 변태민씨가 정말 산짐승 먹는 것을 금했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거듭 귀에 틀어넣었다.

장곡사 대웅전에서 나란히 절을 올리라고 했다. 바람을 쐬다 갈 터이니, 둘이 먼저 내려가라 해 놓고는 절 뒤편 산자락 사이로 난 길로 접어들었다. 오월의 녹음 속에 꿩이 화를 치며 푸덕푸덕 날아올랐다. 청설모가 소나무 사이를 건너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들팽이 사이에 발이 빠졌다. 눈에 불바라기 쳤다. 발목이 낡은 덧에 걸렸다. 덧을 묶어 놓은 나무 동지 주변에, 언제 그런 것인지 산짐승 털이 희끗희끗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 (서양화02-07)

전에 먹어 본 적이 없는 음식이고 술이었다. 오소리 뼈로 담근 술이고, 탕은 너구리탕이라고 했다. 너구리를 먹는다면 개를 먹을 것은 명약관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지 싶었다. 구선정 여사를 데리고 칠갑산을 찾아가기로 했다. 개를 기르는 것이 아이들 정서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손주 돌날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갔다가 알게 된 인물이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다. 애완견을 다루는 솜씨를 보고는 아내가 감탄을 했다.

“남편한테도 그렇게 나긋나긋 뼈가 녹색 잘 하시겠수.”

“남편? 그런 거 있는 여자가 왜 이딴 천덕꾸러기 일을 하겠어요?”

뜻밖이었다. 저렇게 수려한 얼굴에 착착 안겨오는 말씨하며, 친절미 넘치는 태도에 남편이 없더니, 세상에 인연이 안 닿으면 저렇기도 한가 싶었다.

“좋은 사람 천거해 볼까요? 특별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개 안 하는, 튼튼한 남자면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변태민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산짐승을 잡아먹는 인간이 저런 여자 남편될 자격이 있

도 몰라.”

그런 이야기 끝에 외로움 타령이 이어졌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지만, 존재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한 열정과도 같은 것이고, 나이와도 상관없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육체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살을 맞부비면서 지내던 아내가 사라진 자리를, 추억이나 막연한 소망으로 채울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여자가, 육체를 가진 여자, 속살 고운 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여튼, 하루 내려오소, 내가 기막힌 걸로 대접을 할 테니 말요.”

기막힌 걸로 대접을 한다는 게 뭔지, 그게 꼭 49제 날이라야 할 이유가 무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꼭 가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육조기 시작했다.

위해 일시 귀국했다고 했다.

“저것들 돌아가면, 나만 덩그렇게 혼자 남아.”

“그래서 외롭다는 건가?”

“우리 자리를 옮기세.”

“절밥도 정갈하고 맛있는데, 식구들이랑 같이 먹지 그러나?”

“연박사가 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럴 수야.”

식구들과 번잡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그의 주장에 한 가닥 진정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연박사는 문득 ‘기막힌 거’라는 게 뭔지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못 이기는 척 함께 일어났다. ‘칠갑산보양탕’이라는 간판이 달린 식당은 해묵은 둥구나무 옆에 깔끔하게 지은 벽돌집이었다.

노파라고 밖에는 달리 명칭을 달 수 없는 늙은이가 음식을 내왔다. 도자기 병에 술이 한 병 담겨 나왔다. 오지그릇에 담긴 탕은 뽕얀 국물 위에 기름기가 무지개처럼 퍼

동 정

수 상

▲宋秉轍(국문47입 金勞8·19회 장)=지난 4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특별공로상 수상.

▲方惠子(회화56-61 재불 서양화가)=지난 5월 9일 한국 문화예술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파리에서 한 불문화상 수상.

▲洪元卓(경제58-62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1회 수당상(인문 사회부문) 수상.

▲宋相現(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장)=지난 5월 30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수여하는 '법의 지배상' 수상.

▲南喆鉉(보대원62-64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최근 시사뉴스와 뉴스메이커가선정한 2012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에 선정돼 대상 수상.

▲趙鎭民(물리62-66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지난 5월 13일 제22회 상허대상(학술부문)

수상자에 선정.
▲卞增男(전자공학62-69 울산과학기술대 석좌교수)=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1회 수당상(응용과학부문) 수상.

▲金平祐(법학63-67 前대한변호사협회장·본회 부회장)=지난 4월 25일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5월 7일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수여하는 탁월한 국제 지도자상 수상.

▲吳生根(불문66-70 모교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지난 5월 12일 片雲 趙炳華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2회 편운문학상(평론부문) 수상. 또 비평집 '위기와 희망'으로 오는 6월 20일 제23회 八峰비평문학상 수상.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최근 미국 인명연구소(ABI)로부터 도자공예분야 올해의 여성(Woman of the Year 2012)으로 선정.

▲金龍潭(법학66-70 前대법관·한국법학원장)=지난 5월 13일 제22회 상허대상(법률부문) 수상자에 선정.

▲金明洙(화학67-71 모교 화학부 교수)=지난 5월 2일 재단법인 수당재단으로부터 제21회 수당상(기초과학부문) 수상.

▲吳元錫(기계공학71-75 코리아에프티 회장)=지난 5월 11일 제9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愼昌幸(의학72-78 교보생명보험 대표·본회 부회장)=지난 5월 4일 아동복지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金建植(법학73-77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4월 25일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황조근정훈장 수훈.

▲柳振寧(화학공학75-79 LG화학 부사장)=지난 5월 18일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鄭在雄(식품공학78-82 미국 남가주대 교수)=지난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22회 호암상 의학상 수상.

▲陳銀淑(작곡81-8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지난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22회 호암상 예술상 수상.

▲金民衡(수학82-85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겸 포스텍 석좌교수)=지난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22회 호암상 과학상

수상.
▲鄭星姬(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한국여기자협회장)=지난 5월 2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또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29회 최은희여기자상 수상.

▲羅廷燦(수의학82-86 알앤엘바이오 회장)=지난 5월 16일 재단법인 5·16민족상으로부터 제47회 5·16민족상(과학기술개발부문) 수상.

▲玄澤煥(화학83-87 모교 화학부 석좌교수)=지난 6월 1일 서울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제22회 호암상 공학상 수상.

▲李大寧(기계공학83-87 KIST 책임연구원)=지난 5월 18일 제47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張明宇(치의학83-89 하버드대 교수)=지난 5월 23일 미국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교수상 수상.

▲金範洙(산업공학86-90 카카오 이사회 의장)=지난 5월 9일 서울 삼성동 아리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제6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

▲金朋年(의학86-92 모교 정신과 학교실 교수)=지난 5월 11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제3회 소년 학술상 수상.

▲柳莊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4월 30일 제2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安商守(법학64-68 前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前국회의원)=최근 법률사무소 정상 고문변호사에 취임.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지난 4월 26~2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암 예방기구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연임.

▲趙源權(경제76-80 우송대 제2 학사부총장)=지난 4월 17일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명예영사에 위촉.

▲林海京(기악77-81 충남대 교수·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지난 4월 30일 아시아·태평양 공연센터연합회(AAPPAC)

이사에 선출.
▲金昌範(영문82졸 청와대 의전비서관)=지난 5월 9일 주벨기

인 사

▲柳莊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4월 30일 제2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安商守(법학64-68 前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前국회의원)=최근 법률사무소 정상 고문변호사에 취임.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지난 4월 26~29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암 예방기구 총회에서 사무총장에 연임.

▲趙源權(경제76-80 우송대 제2 학사부총장)=지난 4월 17일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명예영사에 위촉.

▲林海京(기악77-81 충남대 교수·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지난 4월 30일 아시아·태평양 공연센터연합회(AAPPAC)

이사에 선출.
▲金昌範(영문82졸 청와대 의전비서관)=지난 5월 9일 주벨기

결혼, 행복한 1등 출발

행복출발 더원

무료상담 1588-3883

고객사랑브랜드 大賞

결혼은 1등으로
행복출발 하세요

15년 성혼의 달인들이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美명문 와튼스쿨 출신
경영진의 결혼정보회사

업계 선두
전문특화 결혼정보
10년 앞선 특화 서비스
업계 최초 전문 결혼정보 외길

세계최고 MBA
(와튼스쿨) 출신
와튼스쿨 출신들이 경영
NO.1 결혼정보 추구

15년 노하우
성혼의 달인들
15년 대한민국 결혼 책임
따라올 수 없는 결혼 성공

독보적인 글로벌
검증 시스템
100% 신원인증, 신용검증, 안심보험
나스닥 상장사 퍼스트어드벤처지 제휴

완벽한 고객
최우선 서비스
2011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표준약관 100% 엄수

에 대사 겸 유럽연합(EU) 대사에 임명.

▲崔英勳(법학78-83 동아일보 편집국 스탠더드 에디터·본보 논설위원)=지난 6월 1일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李榮星(정치79-83 前한국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지난 5월 1일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金應權(사회교육81-85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지난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명.

▲金빛내리(미생물88-92 모교 생명과학부 중견 석좌교수)=지난 5월 9일 한국 과학자로는 처음으로 유럽분자생물학기구 회원에 선출.

▲이정현(성악97-03 테너)=지난 5월 1일 임기 4년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순수음악분야 이사에 선출.

행 사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수당재단 이사장·분회 고문)=지난 5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1회 수당상 시상식 개최.

▲鄭秉起(농경제52-57 前세계은행 농업컨설턴트·용인탁구사랑 회장)=지난 5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여가 생활'을 주제로 특강.

▲閔庚甲(회화53-57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지난 5월 8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자연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기증작가 초대전 개최.

▲金璟東(사회55-59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지난 5월 4일 여수엑스포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특별포럼에서 '자원봉사와 국가공동체 복원의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

▲俞東濬(잡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장회장)=지난 5월 18일 고려대에서 '농정현안·제19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농업정책학회에 참석.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중앙회장)=지난 5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몽골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본이해' 기조강연.

▲朴聖泰(의학58-64 前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고문)=지난 5월 2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오피스텔에 노블사회문화연

구소 개설.
▲申秀貞(기악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모차르트홀 음악감독·음대동창회장)=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오월의 사랑의 노래'를 주제로 연주회 개최.

▲李璟浩(행정61-65 프리씨오 대표)=지난 5월 21~27일 서울 청담동 청담갤러리에서 고희 기념 개인전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5월 25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황금평-위화도경계지 대법의 제정 의미와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金聖奎(행정70-72 인도네시아 시아쿠알라대 방문교수·아체 한국문화원장)=최근 시아쿠알라대 특설전시관에서 'EDU 2102 Aceh EXPO' 전람회 개최.

▲羅成淑(응용미술71-75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지난 6월 1~14일 서울 서초동 호서대 갤러리K에서 환갑을 기념해 '북촌한옥마을에서'를 주제로 옷집전 개최.

▲邊榮惠(회화78-82 광림미술인선교회장)=지난 5월 9~15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2011 한국미술상 변영혜 작가

수상기념전' 개최
▲尹旺老(기악82-86 백석대 교수·화성시음악협회장)=지난 6월 9일 경기도 화성시 유엔아이스터 화성아트홀에서 난파탄생 114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정현진(성악87-91 소프라노)=지난 6월 12일 서울 여의도 동영산아트홀에서 '노래의 날개 위에'를 주제로 독창회 개최.

▲鄭玲安(기악92-96 평택대 교수)=지난 5월 8일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슈만,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吳恒基(경성대46졸 前전남대 총장)=5월 25일 별세(93세)
▲梁承孝(기계공학48-52 전남대 명예교수)=5월 19일 별세(84세)
▲李孟成(영어교육49-53 모교 명예교수)=5월 9일 별세(83세)
▲池植日(법학52입 한양대 명예교수)=5월 1일 별세(79세)
▲金元銖(상학54-58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5월 19일 별세(78세)
▲邊 炎(섬유공학54-58 前쌍방울상사 사장)=5월 3일 별세(77세)
▲崔道熙(철학56-60 건국대 명예교수)=5월 24일 별세(81세)
▲尹瑞成(법학62-66 前환경부 차관)=5월 26일 별세(69세)
▲李宅敦(행정67졸 前국회의원)=5월 7일 별세(77세)
▲石英宇(수학66-70 前세종대 교수)=5월 13일 별세(69세)
▲劉鍾濬(신대원72-74 前KBS 해설위원)=5월 18일 별세(65세)
▲金承炫(불어교육80-85 문화일보 부국장)=5월 13일 별세(51세)
▲白榮培(AMP 23기 前효성그룹 부회장)=5월 23일 별세(67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비 혜택은 물론 차별화된 만남 주선, 동문미팅파티 등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철저한 비공개 회원관리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추천, 경향신문 유망브랜드 대상 수상
- KBS TV가이드 제휴사 •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N 엔노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KOREA FUEL-TECH CORPORATION

상장기업
KRX 코스닥시장

2012년 3월 코스닥 시장 상장

The World Best Quality

KFTC Automotive Fuel / Interior System Supplier

업계최고의 기술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한 코리아에프티는 미래를 내다보며 중국, 인도, 폴란드 공장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 세계 일류 상품 인증

• 글로벌 경영 대상 수상

FUEL SYSTEM



CANISTER



FILLER NECK



INTAKE HOSE



FUEL RAIL

INTERIOR PARTS



DUCT ASSY - CONN & DEFROSTER



SUN SHADE



PNL ASSY - CLUSTER FACIA, LHD/RHD



TRIM ASSY - RR PLR, LH/RH

Global Manufacturing



Poland Factory(KFTP)



India Factory(KFTI)



China Factory(BKFTC)

MAIN CUSTOMERS



HYUNDAI



KIA



GM



SAMSUNG
RENAULT SAMSUNG
MOTORS



SSANG YOUNG MOTOR



GM



FIAT



RENAULT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www.kftec.com

본사 및 연구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 115-1 TEL : 031-650-1500 FAX : 031-650-1517
판교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S동 901호

안성공장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 115-1 죽산공장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66 경주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189-15
중국공장 : BEIJING, CHINA 인도공장 : CHENNAI, INDIA 폴란드공장 : ZABRZE/ZORY, POLAND

서남해안권 투자의 최적지 기업하기 좋은 영광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 수도권 2시간 40여분
- 고속도로 IC 5분, 공항·철도 30분내 접근
- 저렴한 산업용지(3.3㎡/395,000원)
- 투자보조금, 전기료지원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제도

문의 : 영광군 지역경제과 (061)350-5438
(주)탐글로리 (061)352-1231

천안빛영광
탐글로리



신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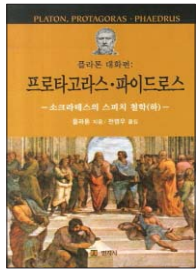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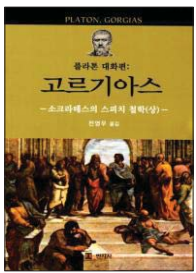
플라톤 대화편 :

고르기아스

플라톤 대화편 :

프로타고라스·파이드로스

— 全英雨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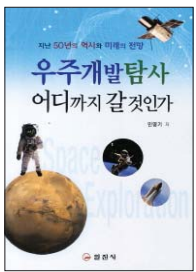
스피치 전공의 수원대 全英雨(국어 교육53-57) 명예교수가 소크라테스의 스피치 철학을 담은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 (부제: 레토릭)와 ‘프로타고라스·파이드로스’ (부제: 소피스트들)를 번역, 출판했다.

‘고르기아스’는 당시 주요 변론가 고르기아스와 플러스 등 아테네 소피스트들이 전한 변론교육의 중요성을 초기에 플라톤이 입증해 보인 내용이다. ‘프로타고라스·파이드로스’는 수사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책이다. <민지사刊·값12,000원/13,000원>

우주개발탐사

어디까지 갈 것인가

— 閔英基 지음



경희대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지낸 閔英基(물리57-61) 동문이 우주개발 탐사의 지난 50년 역사와

미래를 전망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인류의 미래가 걸린 우주개발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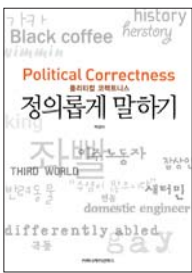
역사적 개관, 우주로켓의 개발, 초기의 우주개발, 달 탐사, 우주왕복선, 우주정거장, ‘우주선 탐사’ 등 총 15장으로 구성했으며,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주 개발과 탐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일진사刊·값22,000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정의롭게 말하기

— 朴錦子 지음

중앙일보 기자, 한국일보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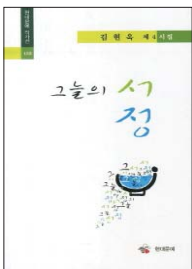
위원, 뉴시스 편집위원 실장 등을 지낸 朴錦子(언어66-70) 동문이 정의 사회, 공정 사회를 위한 해

법으로 정의롭게 말하기를 제시하고 있는 책.

이 책은 정의로움과 우리의 일상에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와 표현에 주목했다. ‘정치적 올바름’으로 번역되는 폴리터컬 코렉트니스(Political Correctness)를 언어적 측면에서 풀어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에 차별과 편견이 담겨 있음을 풍부한 용례로 보여주며 ‘사회적 차별을 받는 집단을 배제하거나, 하층은 존재로 만들거나, 모욕하는 표현이나 행동’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독려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刊·값19,800원>

그들의 서정

— 金賢玉 지음



광주문인협회·광주시인협회 회원인 金賢玉(약학84-88) 동문의 네 번째 시집.

金동문은 표제작 ‘그들의 서정’을 통해 스스로 곱삭고 발효해 끈적이는 자양분으로 익은 남도적 가치를 의식 깊숙이 새겨 넣고자 하고 있다. ‘맛과 맛이 깔린’, ‘여유와 공간이 드리운’ 그들의 서정을 전경화해 시적 비전으로 삼고자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 <현대문예刊·값8,000원>

부동산과 가업승계

— 鄭運經 지음



면서 알게 된, 그들의 가업승계와 부동산 관리 문제를 정부 정책이나 실정법 테두리에서 잘 관리·승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후계자 교육을 하고, 가업승계 가이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특히 부동산과 가업승계의 관련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때문에 발생하는 조세부담에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준다. <생각나눔刊·값12,000원>

공연

최정오보에 독주회

— 6월 17일 예술의 전당



오보이스트 최정(기악00-04) 동문(사진)이 6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이스트만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최동문은 말레이시아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코리아심포니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비발디, 슈만, 드라니쉬 니코바, 파스쿨리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조정민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 6월 17일 금호아트홀



콘트라베이스스트 조정민(기악99-03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동문(사진)이 6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연주 석사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조동문은 이날 보테시니, 니콜라우, 미세크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池恩惠 바이올린 독주회

— 6월 21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池恩惠(기악87-91) 동문이 6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마련한다.

에클레시아 앙상블 대표로 활동 중인 池동문은 이날 바흐, 쇼스타코비치, 부소니 등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趙允敬 피아노 독주회

— 6월 26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趙允敬(기악91-95) 동문(사진)이 6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趙동문은 지난해 서울시립대 강의우수교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단국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모차르트, 바르토크, 쇼팽 등의 작품으로 음악성을 과시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www.khnp.co.kr

“아빠! 원자력이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① 30년 운용 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무사고 운영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겹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처
③ 유능한 전문 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정기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당신의 중형세단



곡선 길에서도 안정적인가?



말리부의 핸들링, 타보면 안다

쉐보레의 프리미엄 중형세단
YOUR NEXT LEVEL
MALIBU

한국자엠 고객센터 080-3000-5000 www.chevrolet.co.kr
쉐보레 공식딜러 대한모터스 051-712-3800 | 삼화모터스 02-753-9900 | 에스에스오토 02-513-0001 | 스피드모터스 042-520-4000 | 아주모터스 02-2023-1900
정부공인연비 및 등급 ■차종명: Malibu 2.0L(연료:가솔린)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530kg ■변속기: 자동 6단 ■연비: 12.4km/L(3등급) ■CO2 배출량: 188g/km ■차종명: Malibu 2.4L(연료:가솔린) ■배기량: 2,384cc
■공차중량: 1,590kg ■변속기: 자동 6단 ■연비: 11.8km/L(3등급) ■CO2 배출량: 199g/km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Green Car를 향한 힘찬 도전!
유라테크가 시작합니다.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 제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유라테크는 품질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저탄소 고연비차량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URA
유라테크

IGNITION SYSTEM MAKER - YURA TECH

□Stick Coil □Platinum Spark Plug ■Spark Plug ■Glow Plug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
◆ Head Office & Plant : 070-7878-3500 ◆ YURA R&D Center : 070-7878-1000 ◆ www.yuratech.co.kr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2년 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2. 3. 26~5. 20) · 일반 (2012. 3. 30~5.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동한 AMP68 △강인중 AMFR8 △곽정욱 HPM24 △권오형 AMP63 △권태영 AIC1 △김광수 공대84 △김대연 IFP1 △김동범 치대93 △김두철 공대66 △김병익 문리57 △김수경 법대71 △김종철 AFB9 △김진우 법대57 △김충환 ACAD18 △김태영 HPM9 △김현욱 인문83 △김형식 GLP9 △김환열 공대78 △노동영 의대75 △도동환 AMP26 △박경기 IFP1 △박도봉 AMP68 △박재완 사회73 △박정삼 법대97 △박철원 법대83 △박태호 상대71 △사대완 자연84 △신선호 공대66 △안수길 공대50 △우근용 사대65 △유재만 AMP17 △유종필 인문78 △유태우 의대74 △윤한철 농대74 △이기전 AMP71 △이돈주 공대75 △이상민 자연90 △이연숙 SPAR4 △이용팔 HPM13 △이유경 수의90 △이은영 IFP5 △이정은 경영90 △이종웅 공대57 △임승윤 사회78 △임윤태 사회88 △정연문 HPM26 △정옥란 SPAR14 △정철우 HPM24 △조상우 법대92 △조용호 AMP41 △조희환 법대91 △채제전 농대64 △최병찬 농대88 △한창민 AIP37 △홍면후 상대46 △홍성호 AMP66 △홍지원 치대83

(일반) △강정모 공대01 △곽광희 HPM8 △김계성 수의84 △김교창 법대55 △김석규 상대53 △김완수 약대77 △김재형 공대07 △김정호 자연83 △김정희 음대04 △김종대 문리67 △김주현 인문90 △명복현 생활56 △문병규 인문04 △박경옥 치대67 △박금자 문리66 △박종훈 AIP44 △배병우 공대82 △배병찬 ACAD72 △배석용 농대81 △백낙영 BCP5 △백소민 음대07 △백정환 의대76 △변정현 약대07 △복성해 농대62 △서병호 의대73 △서정돈 의대61 △서청원 상대64 △성주인 농대89 △송용현 AMP72 △송혜영 법대86 △심인흥 AMP46 △안용태 의대69 △양인모 行院71 △양지훈 공대04 △오남탁 사회01 △우인희 치대80 △윤법렬 법대91 △윤자현 의대53 △이규찬 공대83 △이남근 공대70 △이민혜 농대05 △이요섭 공대93 △이용각 環院99 △이장한 AMP37 △이제홍 AMP65 △이호현 공대07 △이효진 AIP15 △임영준 AFB11 △임용표 농대75

△임현주 약대82 △장성훈 공대03 △장우현 의대50 △장희익 공대68 △전지원 법대87 △정봉우 사대75 △정삼일 의대88 △정영만 ACAD71 △정형근 법대64 △조일호 行院70 △천경준 AMP71 △최금영 공대64 △피수영 의대61 △한중수 의대02 △황수의 문리60 △황순정 치대81 △황영규 공대71

이 사

◆인문대 △김경일76 △김종운75 △김창범82 △신원식73 △오정택82 △윤재인80 △이영인77 △정상영90 △정영주97 △지두환73 △최태영76 △한민구77 △황태순78

◆사회대 △강대수86 △강상주74 △구영수70 △권민용86 △김구섭72 △김대희81 △노택선79 △박재완73 △서황옥91 △성은식76 △손광락74 △이건희73 △이영성79 △이재덕73 △이주홍88 △이창구73 △임 철75 △임주현79 △정 도86 △정삼봉73 △조현래73 △차희원82 △최완근81 △한병송85 △황기호77

◆자연대 △김남수73 △김한복78 △백병학72 △송세안75 △엄원근77 △이창환85 △이현식73 △장대연74 △정철희75 △조재린90 △한민현83

◆간호대 △송미순70 △정성희86 △허 영74

◆경영대 △구자일86 △김명관82 △김삼봉78 △김석호77 △김영기73 △김영렬79 △김용철83 △박훈기81 △서정희78 △안수현77 △오정구74 △유태우79 △이영민83 △이윤호73 △임석우81 △최창묵82 △홍석주72 △황수영80

◆공대 △강남식73 △강순욱53 △강인권72 △강희태58 △고영주67 △고재홍75 △곽삼영51 △권명옥76 △김경화65 △김광일81 △김노수45 △김명근53 △김명석74 △김명수73 △김명호74 △김병열72 △김병욱76 △김상훈80 △김신원64 △김영중76 △김원배55 △김원수61 △김인상67 △김정기68 △김제영71 △김종광68 △김종근54 △김종식77 △김종욱61 △김종찬54 △김진근71 △김진영68 △김진원68 △김태형78 △김한섭68 △김항준73 △남상률70 △노환진81 △류무열77 △문찬국73 △문희성57 △민경식50 △박상호76 △박세형73 △박준창47 △박창순64 △박대원49 △박대훈78 △박호견69 △박황호65 △박효대76 △배무현72 △배영호63 △백성기67 △백승욱58 △백승환71 △백형배47 △변영삼77 △변용현66

△서광벽73 △서문호68 △서우원61 △석현수72 △선석문68 △성백문83 △신현철47 △심혜경53 △안기원70 △안동만66 △안재휴52 △염사연64 △오성환59 △오태식75 △유병철42 △유승빈63 △윤국노62 △윤용균81 △윤재석59 △이근명63 △이문화59 △이병호54 △이병락68 △이병하69 △이상형68 △이상호81 △이상호92 △이승기70 △이영재69 △이운형65 △이종호59 △이주범56 △이중성61 △이창갑46 △이충수54 △이태동64 △이태수77 △이화흔74 △이환범56 △이희달70 △임병준87 △장기욱53 △전춘석77 △정규홍82 △정익주68 △정조섭56 △정태현73 △정호근69 △조광연70 △조대승81 △조덕상66 △조흥구68 △진영준67 △최 연68 △최상오63 △최홍영69 △한도석78 △한영호69 △한정훈76 △홍광표54 △홍영희54 △황이선62

◆농대 △강대구79 △권명구68 △김근영65 △김남현74 △김민수73 △김사일53 △김상국51 △김영섭65 △김영진53 △김일봉68 △김종대72 △김지용91 △김진석69 △김태영82 △류기락81 △목세균63 △문철명60 △민경택88 △박대경51 △박성수73 △박영문71 △박창용65 △석준호55 △송한용83 △안수구73 △연장식84 △오승관77 △윤재수63 △윤희진63 △이병일57 △이봉영76 △이선진69 △이영호65 △이원규58 △이혜근67 △임형백89 △장승호81 △전재성72 △정봉진73 △정수봉60 △정창주53 △조상기83 △차성윤57 △최주섭67 △허 명78 △홍현주73

◆문리대 △강신항49 △고 건56 △구태화46 △권병두65 △김 명67 △김규상57 △김기주54 △김덕창59 △김두희52 △김승국56 △김영일62 △김용범60 △김용표68 △남기민69 △민영기57 △박영원69 △방효선51 △변 형61 △송규정63 △오영일61 △유재전57 △이광찬58 △이대승66 △이병형67 △이상무61 △이영래60 △이영록66 △이영준67 △이재형65 △이정윤54 △인태오57 △장정환56 △정 광62 △정무호61 △정연국64 △정의용64 △차영구73 △최경락71 △최서영54 △최홍근70 △호문익61 △홍종웅65 △황병선64

◆미대 △김 태51 △김연수76 △박재호59 △송복희74 △안상원82 △임훈순48 △전영철53 △천진희76

◆법대 △강민수65 △강용구52 △고광우53 △곽노준74 △곽현수72 △권광중61 △권연상58 △권혁채60 △기우중85 △김 훈85 △김귀동70

△김덕영60 △김도연58 △김동호56 △김득환79 △김명종85 △김성길60 △김승욱60 △김승진57 △김시영71 △김영상54 △김영일60 △김우진83 △김응열59 △김의재56 △김의환81 △김인겸82 △김재덕73 △김정일60 △김종구59 △김종률81 △김종훈83 △김창복51 △김창희82 △김현산54 △김현순54 △나경원82 △나대진67 △나정욱59 △노신영50 △문효남74 △민병국57 △민병권83 △민병환86 △민수명60 △박경보70 △박무용64 △박부찬56 △박상기56 △박상우75 △박성철75 △박수복77 △박영렬75 △박요찬81 △박용삼63 △박원진51 △박철근55 △박충근68 △배기열82 △배용재74 △변 옥57 △변재일59 △서경석67 △서규영79 △서돈양56 △서동희80 △서상수80 △서상희68 △서요한85 △서정석65 △성백현78 △성태문60 △송기영69 △송언종56 △송진훈59 △신기남70 △신상규68 △심삼철76 △심재갑52 △안성희66 △안종윤51 △여상조70 △오복동57 △오세빈68 △오진환75 △우의형66 △유기준78 △유영삼81 △유정호62 △윤영철56 △윤우진71 △윤일영52 △윤재열50 △이건개59 △이광진77 △이대경77 △이문재65 △이민재72 △이상주82 △이석수81 △이세복61 △이세창57 △이세훈55 △이순기03 △이영범59 △이영준57 △이원규75 △이인표54 △이재방78 △이재원77 △이재철70 △이정훈89 △이종주85 △이진배65 △이춘성74 △이태창61 △이형진81 △임 경78 △임인택58 △임종식79 △장병규53 △장세두59 △장준철67 △정도출68 △정상환83 △정연조55 △정용달81 △정우모56 △정은구58 △정한상50 △정휘위62 △조남대83 △조성제85 △조준연85 △주진학54 △지관엽75 △채 윤78 △최근선54 △최기정60 △최상원82 △최석문86 △최세관54 △한경국57 △한덕수55 △한부환66 △한승희55 △한이봉83 △함영열57 △현순도66 △홍경용49 △홍성무73 △홍세렬80 △황병인54 △황보중74 △황봉환73 △황선태66 △황영구75 △황정열85 △황진구88 △황창섭53 △황희철77

◆시대 △곽형기71 △구영주72 △김병무64 △김성호70 △김영국69 △김영삼73 △김영진51 △김재성82 △김종언58 △노갑기66 △류벽하77 △민경현53 △민흥기59 △박영배65 △박종세55 △박찬구56 △배영철79 △손경희65 △송광섭77 △송동수67 △안승룡75 △오범호93 △왕문용66 △유영채70 △유희일68 △윤 진84

△윤웅섭61 △윤재봉56 △이병호70 △이복환70 △이정태70 △이환의54 △전성탁54 △전용근73 △정귀생58 △정상윤74 △정의포70 △정준섭61 △최광열73 △최돈형68 △최병순69 △최병주56 △최수현81 △표진이66 △홍철근70 △황성욱68 △황승기69 △황채호61

◆상대 △강인식65 △계준혁48 △권혁승53 △권희구56 △김경모61 △김기중57 △김뇌형63 △김대중66 △김부규56 △김성규57 △김영식66 △김원기46 △김정우65 △김종국55 △김종호54 △김중기54 △김중석65 △김철영70 △김태두50 △김형만52 △남상덕69 △노인환54 △문운용60 △문철환56 △박영조61 △손재환69 △송우익71 △신명호46 △신세길57 △심재석64 △심정구53 △안태호45 △오강욱56 △유영일53 △윤용석58 △윤우진61 △이관규61 △이봉서55 △이세근63 △이재규65 △이정복54 △이하룡69 △이한희54 △임종두61 △장명섭49 △전창수57 △정 용61 △정병호53 △최명규46 △최부완54 △최영환60 △최행주66 △한병무59 △홍영국60 △황동규63

◆생활대 △손인희72 △이선영78 △이승신73 △장재정65 △최영선71 △황덕순72

◆수의대 △권순현76 △김본원63 △김상돈44 △김창윤53 △김택수55 △김휘석72 △배상호64 △신도균81 △윤화중54 △이 준62 △장치훈70 △최유주00

◆약대 △강석진55 △권경근56 △김수경57 △김우영67 △김재근59 △김정기69 △김진우54 △김진훈71 △맹호영81 △문원호65 △박종길71 △백성기59 △서석수51 △송창진54 △신현학56 △신화범50 △심규장70 △오연준56 △오응준58 △우재성71 △유 연70 △윤승로56 △이기평60 △장용택55 △진 강56 △차기현59 △최규팔70 △최종수82

◆음대 △강낙영67 △공정원92 △김미경69 △김봉원55 △박정욱78 △유신선79 △이경숙50 △이창수67 △장재홍57 △전민숙66

◆의대 △강대희81 △강일태74 △강진영67 △고행일64 △김병찬53 △김병천65 △김소연74 △김승욱50 △김진조45 △김천영46 △김창석85 △김현우64 △노동영75 △노문진90 △동영송49 △문선희89 △박동현70 △박문갑46 △박상용57 △박세용76 △박인숙67 △박훈영71 △선덕영49 △송희승53 △심달섭45 △심영보55 △심용석59 △양승오75 △유경상64 △유병훈67 △유지문54 △유태연54 △윤광선68 △이강진74 △이대규53 △이수철71 △장돈식56 △장윤석49 △정필현82 △지삼봉55 △최경진68 △최규완55 △최세준53 △최수연90 △한중수71 △한진희71 △함문일84 △함의근52 △홍영수66 △황정운54

◆치대 △강근수63 △구창서58 △김경남72 △김경애57 △김규진64 △김기현56 △김병수84 △김성룡58 △김승현98 △김윤영58 △김지호59 △김채중68 △김현풍60 △김휘철77

△류남순70 △류흥렬77 △민병덕64
△박상근66 △박충차62 △박행운56
△백경동86 △부삼환58 △성현경59
△신덕재68 △신일규65 △양희일56
△윤봉윤79 △윤임도72 △윤철민82
△이석근90 △이시우59 △이용오56
△이용오62 △이종오76 △이한무65
△임순모70 △임종호82 △장동재79
△정광현58 △정용호65 △조광현70
△조성복55 △최성근65 △한성훈60
△허준구66 △현기용77
◆대학원 △권력길78 △김종호84
△김준호86 △김진경93 △남선현77
△박복만66 △박종열71 △윤경섭89
△윤용훈97 △이효수84 △장승재83
△최인수85
◆경대원 △박원봉68
◆보대원 △박종안72 △유승진99
△이규한63 △정두채80 △조경복92
△조경종68 △최지원97
◆사대원 △김창식67 △송정호66
△이원석67
◆신대원 △김희옥76 △유일상72
△이근수67
◆행대원 △김덕중82 △김상영65
△김종식83 △염돈재98 △윤일균69
△이영태72 △정영섭66 △허남식78
◆현대원 △박상락84 △이평재73
△황학래74
◆AMP △강봉희36 △강제문42
△권영선3 △김건중38 △김기용28

△김능수70 △김상훈68 △김수환15
△김영도23 △김장환15 △김주한50
△김진찬43 △김혜삼51 △남기욱32
△민경서48 △민명술42 △박달용4
△박병렬67 △박일동66 △성영창26
△손창수41 △송언기28 △심동보61
△안창엽68 △오희택1 △우재영7
△이경운67 △이방수37 △이태섭5
△이호수35 △정석재61 △조문규51
△조승현66 △황종갑56
◆AIP △권영익19 △김동하29
△김승겸16 △김용태30 △김진수29
△김학규26 △김후근17 △문일권39
△박명규42 △박순범36 △박장식27
△예상호8 △오태호33 △위재근27
△이갑순9 △이대만24 △전영하28
△최재동20
◆ACAD △강남주56 △곽기현70
△김연수16 △김용기64 △김창식45
△김태환38 △배윤도54 △신동만11
△신은우56 △안근일68 △이상호71
△이왕열33 △전영배5 △진강현20
◆ABP △이삼희20 △전안희20
◆SGS △권중환25 △김광두3
△김종호4 △손창민24 △이창근1
△황종현18
◆APC △김철수6
◆HPM △김 웅6 △김광태2
△김복희1 △변 욱22 △사재훈20
△손규호11 △오국진5 △이공순5
△이석태23 △이태수6 △조경순12

△채상식17 △최봉영22 △최승용9
△최창욱14 △황경수23
◆AMPP △류귀식7 △이은세9
△이인곤2 △홍석우9
◆AIC △강선무28 △이경의5
△최근수16 △최유섭11
◆AFB △권병환10 △방윤석10
△성태섭1
◆AMPFRI △백두철9 △서재용22
△유영기23 △이규태14 △이춘희9
△이태갑14 △이현호19 △최병도12
◆ACMP △권오봉6 △김창환5
△이근성1
◆FIP △권택율7 △김성하6
△김인중8 △안성훈1 △이재병1
△황귀봉1
◆GLP △김병윤16 △김익환20
△오윤석16 △유운산11 △한충권20
△홍재희20
◆ALP △김기식5 △허영호4
◆SPARC △권세원16 △김준수19
△류성택16 △박노현15 △박승식6
△송인철14 △정옥란14 △황용규15
◆AFP △이돈구4
◆IFP △김용배2
◆BCP △최무순3

일 반

◆인문대 △강지연03 △권기욱82
△박중보97 △박지수07 △서태영74

△오성민97 △이동림88 △이흥균71
△장한기73 △하정숙82
◆사회대 △고희경05 △김덕수84
△김만환79 △김서희02 △김영생81
△류연택91 △박병욱97 △배세환96
△백두현82 △변동희73 △손종원81
△오정민07 △유성용84 △이진병78
△이창렬78 △임영탁00 △전상현91
△정현민81 △홍나리04 △홍민영96
◆자연대 △김동훈86 △김훈민01
△박강현00 △박세진76 △박혜령00
△송성식84 △신영길78 △안명천84
△염상영77 △유상준90 △윤은영03
△이동영01 △이병철02 △이슬기전04
△이원석05 △이은혜05 △이준영81
△이철현82 △이종렬00 △임태순79
△최진혁71
◆간호대 △육효순79 △이연지05
△이영선76 △이인옥74 △한혜숙72
◆경영대 △노진만83 △성기만84
△성안기87 △안효민94 △이난샘99
△임정오68 △조표훈95
◆공대 △강정호07 △경경환72
△고근희54 △곽덕훈69 △곽민정01
△곽우섭97 △곽창환01 △구형모79
△권경덕62 △권봉일69 △권성국92
△권순영52 △권순학64 △김 영52
△김갑환73 △김경락57 △김명신07
△김서희03 △김영식72 △김영환56
△김우진05 △김재열03 △김재용07
△김재형51 △김종민68 △김종호72
△김주영55 △김천주57 △김학성85
△김현동06 △김형전52 △남기동43
△노정익46 △노홍조48 △문제춘71
△박동식68 △박명준53 △박용기71
△박이관58 △박정주78 △박종현92
△박현우53 △박희규54 △백용현48
△서주연07 △송미하02 △송수영51
△송영찬06 △심진보02 △안정기03
△안홍삼63 △양창국60 △오 훈95
△오세현59 △원경식77 △원제혁58
△유무웅58 △유송현99 △유정열84
△유현규56 △윤정목63 △윤태호03
△이강훈52 △이경훈61 △이국노80
△이근수54 △이낙주47 △이미지03
△이민규03 △이성실51 △이승률55
△이영윤70 △이원진89 △이인태53
△이장원99 △이재훈01 △이제근56
△이주익80 △이현식88 △이효일62
△이희발72 △임태원47 △장재명00
△전현철07 △정병일50 △정연수05
△정우석98 △정태증48 △정현철53
△조국영92 △조래승56 △조장하57
△주익철89 △최석주51 △최수흥06
△최의원54 △최현수85 △한상흠85
△한택상70 △홍성철87 △홍승일04
◆농대 △강남권80 △권대결57
△김경숙82 △김동익52 △김영조82
△김인희58 △김재인62 △김종천53
△김준평48 △김태희57 △박남중54
△박동호74 △박재욱59 △박제범53
△박종대76 △박진화57 △박천운91
△박관규55 △박형훈55 △박홍준83
△방수자62 △방화원80 △송기덕55
△송영달55 △신동수55 △신상혁56
△신종복54 △양동섭90 △양철호89
△양춘웅63 △오수영59 △오충용60
△오학영56 △오흥석50 △유광일66
△유병윤54 △유영준59 △윤용건52
△윤창영76 △이계은55 △이상하56
△이은중59 △이준원81 △이춘현53

△임 빈07 △장세종66 △장용인70
△장정수64 △정구현53 △정병기52
△조규탁86 △조성환51 △최무재53
△최영주75 △최현숙65 △한상봉57
△한해룡55 △홍정선06
◆문리대 △강기진63 △강석명56
△강신성65 △고병국46 △곽민섭57
△구준욱58 △권의식67 △김규완57
△김기현52 △김명수54 △김병진66
△김선리64 △김수학53 △김유석55
△김종휘56 △김창락56 △남기흥67
△류수현48 △문동성69 △배정룡53
△배태영67 △소광희53 △송권용58
△신현식56 △양동철58 △오근영59
△오세한66 △오현승65 △유정열52
△이시종67 △이연재56 △이영재62
△이용웅65 △이정숙57 △정 탁59
△정관철59 △정서구65 △조성근53
△조영길58 △지정택70 △최선록59
△최순봉55 △최승일61 △최연균67
△추호경65 △한정인50
◆미대 △강봉구04 △남 철57
△유영일83 △윤영철82 △이민익57
△이상은86 △정치환60 △조수호47
△조재구60 △차정화05 △현숙자56
△홍경희66
◆법대 △강병연57 △강석균50
△강승구80 △강이수58 △고재화62
△고천적71 △김 환81 △김기동75
△김기완59 △김기형50 △김동규03
△김수남78 △김시형58 △김양섭90
△김영기66 △김용제53 △김운용81
△김원주53 △김윤섭56 △김종국65
△김황식67 △문진구01 △박용석74
△박익환81 △박재원55 △박재현00
△박주환63 △배찬민58 △백영철68
△백윤수65 △서서원58 △서정걸85
△송재현60 △신성국73 △신현무58
△안창식53 △예세민92 △오석환51
△오형환65 △우영화62 △유병욱76
△유태길53 △이강명64 △이교립73
△이대영58 △이대우67 △이병무57
△이상철79 △이순복54 △이승환55
△이인호54 △이재성78 △이제영83
△이종문56 △이충호68 △임광섭01
△임상현59 △임승언56 △전수철63
△정경용65 △정기돈78 △정서용05
△조세연53 △조영진66 △조재호86
△차문호88 △채주엽91 △최경자01
△최광률54 △최성배88 △최종모83
△최지석94 △한상술58 △한연수95
△홍일표63 △황윤성79 △황인구00

분 담 금

◆오스트리아지부 799,000원

(지면관계로 사범대학 이후 단과 대학(원) 및 특별교정 일반회비 납 부자 명단을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4 월 계 : 59,759,000원
평생회비 : 41,040,000원
입 회 비 : 190,000원
총 계 : 353,167,500원

www.kopti.re.kr

KOPTI 한국광기술원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한국광기술원이 친환경 첨단 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선도해 갑니다.

광산업은 우리 삶의 따뜻한 미래를 열어갈 부품소재·녹색·융합기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산업입니다. 글로벌 광산업 메카로 성장하는 광산업클러스터를 이끌어가는 한국광기술원은 광산업체의 든든한 성공파트너로서 언제나 기업과 함께 합니다.



R&D중점분야 LED, LED·OLED조명 / 적외선광학렌즈, 산업용레이저 / 광통신, 지능형광센서, 3D융합, 광의료, 태양전지 / 광기반융합기술개발

기업지원중점분야 시험생산 / 시험인증, 교정, 물성분석 / 창업보육 및 기술이전 / 인력양성 / 장비, 시설지원 / LED조명실증

KOPTI 한국광기술원
Korea Photonics Technology Institute

- 광클러스터, 국내클러스터 중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평가('11.8 기재부)
- 지역산업진흥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11.9 지역발전위)

KWANJEONG EDUCATIONAL FOUNDATION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www.ikef.or.kr

최고의 인재에게 최대의 지원을 합니다.



재단을 지원하는 기업(삼영그룹)

- **삼영화학공업(주)** www.sycc.co.kr
세계 초일류 전자필름, 포장필름의 선도 기업
- **삼영중공업(주)** www.syhi.co.kr
조선업의 핵심인 엔진, 선박 부품 및 플랜트 사업
- **삼영산업(주)** www.sycfile.co.kr
최고의 품질, 최대 규모의 자부심을 가진 타일 업계의 선두 주자
- **고려애자공업(주)** www.kri-sy.com
국내 유일의 현수애자 제조회사로 세계적인 초초고압애자 생산
- **크라운컨트리클럽** www.jeucrowncc.co.kr
아름다운 제주도의 자연속에서 즐기는 27홀의 전천후 골프장
- **호텔뉴크라운** www.hotelnewcrown.co.kr
제주도의 바다와 한라산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

우수 인재 육성만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며 사회로부터 획득한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고 2000년 6월 재단을 설립하여 200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출연 자산은 약 8,000억원이며 운용 수입으로 매년 150억원 내외의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외 유학 장학생에게는 연간 최고 55,000달러, 국내 장학생에게는 연간 1,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CLESON

인천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1

QUALITY
ASSURED
COMPANY
ISO 9001

KTR-CC KAB-QC-07

자동 세척 시스템

최고의 품질과 성능, 고객 만족을 목표로 세척 설비 분야의 선두 기업 !!
무세제 세척 시스템을 목표로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 !!

CLESON 브랜드화로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20년의 축적된 노하우가 클레슨의 힘입니다.



팔레트 세척기



크레이트 세척기



LCD TV부품 자동세척기



연속 PRESS물 자동세척기



• 생산 제품



팔레트 세척기



연속 자동 건조기



PCB세척기(SMT후공정)



자동차 미손 세척기



핸드폰 부품 세척기



트레이 자동 세척기



베어링 세척기



미손커버 세척기



엑셀하우징 세척기



미손부품 세척기



컴프레서 세척기



조향 부품 세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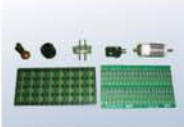


LCD 세척기



자동건조기

• 세척 부품



• 세척 용도

LCD, 반도체, 전자분야
LCD/LED 부품
반도체, 광학 부품 세척
PCB 기판의 Flux 세척
접점류의 정밀 세척
TV 커버 및 샷시 세척
정밀 프레스 부품 세척
트레이, 매거진 세척
휴대폰 부품 세척

자동차, 중장비 부품 분야
엔진 블록 및 미손 부품 세척
프레스 및 도장 부품 세척
엑셀 부품 세척
CAN & TUBE 세척
배터리 세척
냉열기 부품 세척
조향 및 제동 부품 세척
도장 전처리 프레스 물 세척

식품류 물류 분야
크레이트 세척
팔레트 세척
농산물, 수산물 용기 세척
HACCP, GMP 대응용
P-BOX 세척기

어려운 건조 분야
PIN, TUBE, CAN 다량을 짧은
시간에 건조
열에 약한 소재를 짧은 시간에
건조
겹층 부품의 세척 건조
적층 코어 제품

• 특허 실용신안 상표

특허 세정요소의 자동세척시스템
특허 코팅장치
특허 기계부품용 초음파 자동세척기
특허 판상부재용 초음파 자동세척기
특허 진공초음파 자동세척 시스템
특허 비이오 초음파 세척 장치
특허 고액 혼합물 분리장치
특허 유수분리장치
특허 여과장치용 크린 파우더 회수기
특허 상자 자동 세척 및 건조장치

특허 팔레트 자동 세척장치 및 세척
방법
실용신안 자기전단형 초음파세척기의 초음
파 발생 회로장치
실용신안 회전식 박스세척기
실용신안 박스세척기용 컨베이어 장치
실용신안 바스켓의 적재물 배출구조
공기부양식 평면패널 이송장치
상표 클레슨
상표 CLESON

부품 세척기 전문 제작 업체

CLESON (주) 클레슨
www.cleson.co.kr

본사·공장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267
TEL : (032)8888-114 FAX : (032)8686-078
기술연구소 TEL : (032)868-6075

